metro

메트로 2014년 12월 1일 월요일 제3106호 www.metroseoul.co.kr


시청 앞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점등 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지난달 29일 오후 점등식을 갖고 불을 밝혔다. 20만개의 전구로 꾸며진 15미터 높이의 이 트리는 내년 1월 4일까지 서울 도심을 훈훈하게 밝히게 된다. /연합뉴스

# “창조경제, 아! 이런 것이구나~”

## 코엑스에서 열린 박람회… 성과·사례 알리는 계기로

르포

“창조경제의 현재와 미래는 일상 가까이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21개 정부 부처·청과 전경련, 벤처기업협회 등 11개 경제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창조경제박람회’가 지난달 27~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창조경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창조경제의 성과와 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지난달 29일 창조경제박람회 현장은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으로 붐볐다.

창조경제박람회를 홍보하던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의 미래는 ‘왜 그럴까?’라는 단순한 물음에서 시작한다”며 “우리가 흔히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실생활 제품들이 이런 궁금증과 만나 새롭게 탄생하는 아이디어 제품이나 기술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일 먼저 방문한 D홀은 창조경제 생태계의 모습과 사례들을 쉽게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KT·CJ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모여 창조경제 미래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줬다.

삼성전자가 마련한 ‘UHD 박물관 동물원’은 다음 세대에 소중히 물려줘야 할 우리 문화재와 멸종위기 동물들의 모습을 UHD TV에 담아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관람객은 실제 다양한 그림·도자기 등 문화재 자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UHD 화질로 확대해 볼 수 있다.

LG전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미래의 우리 생활의 변화를 보여줬다. 특히 스마트카는 스마트폰을 차량에 올려놓으면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해 차량이 다양한 기능을 구현한다. 차량이 스마트폰의 개인정보를 인식, 맞춤형 음악을 틀어주고 SNS를 음성으로 실행하는 등 미래형 스마트카의 모습을 보여준다.

###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실생활 풍요롭게 바꿔
### 체험공간 위주로 꾸며 가족관람객 발길 북적

SK텔레콤은 전통과 ICT의 결합을 주제로 새로운 창조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SK텔레콤은 현재 ICT를 활용해 전통시장을 스마트화했다. 인천 신기시장 등을 배경으로 현장에서 적용된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바이샵·전통시장 멤버십카드·‘전자스탬프’·무인택배 를 비롯해 농수산업 ICT융복합 솔루션인 ‘스마트양식장’·‘스마트 로컬푸드’ 등을 통해 주목받았다.

이날 가족들과 함께 박람회를 방문한 민효정(39·여)씨는 “주말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박람회를 방문했는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좋았다”면서 “최근 창조경제라는 말은 언론을 통해 자주 접했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창조경제란 아, 이런 것이구나’라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코엑스 C홀은 벤처·창업기업의 우수제품 전시, 제도전과 벤처창업 성공사례, 창업 멘토링·상담과 더불어 각 정부부처·출연연 등의 창조경제 혁신사례를 전시했다.

C홀의 벤처·창업기업관은 우리 실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생활문화관에 전시된 아이디어 제품은 창조경제 결과물의 실제라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앞서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은 “창조경제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우리 생활을 보다 경제적이고 풍요롭게 바꾸는 것”이라며 제1회 창조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고무장갑 탈착용’ 아이디어 상품을 예로 들었다.

쓰레기봉투 지지대 ‘착착이’, 한 접시에 국물과 요리를 섞이지 않게 담을 수 있는 ‘곱할 접시’, 교통카드 중복인식을 방지해 주는 ‘차단차단 카드홀더’ 등 아이디어 오디션 사업화 제품을 비롯해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이 전시됐다.

/미래영기자 ly0403@metroseoul.co.kr

## 코리아 그랜드세일 오늘부터 84일 동안

### 외국인에 큰 폭 할인혜택

우리나라 최대 쇼핑관광축제인 ‘2015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84일간 열린다.

이 기간 서울·부산·경기·강원·충북·경북·제주 등 지방자치단체, 주요 백화점·면세점·호텔·대형마트·쇼핑몰·공연기획사 등 135개업체 2만 8000여개 업소가 참여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할인혜택·이벤트·기념품 등을 제공한다.

12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럭키 박스 이벤트’를 벌인다. 외국인이 쇼핑 영수증을 갖고 명동에 마련된 이벤트 부스에 찾아가면 응모권 추첨을 거쳐 황금열쇠 10돈을 비롯 다양한 경품 500여 개를 증정한다.

내년 1월부터는 놀거리·즐길거리·살거리 등 주제별로 진행되는 ‘스페셜 테마위크’가 이어진다.

놀거리 기간에는 ‘사랑하면 춤을 춰라’·‘점프’ 등 대표적인 마임공연이 펼쳐진다. 즐길거리 기간에는 에버랜드·휘파운트 등 놀이공원 입장권을 50% 이상 파격 할인한다.

/박지원기자 ...

## 靑 '정윤회 문건' 뇌관으로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보도로 촉발된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논란이 연말 정국을 뒤흔들 뇌관으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야권은 모처럼 만난 이번 호재를 정치공세의 연말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일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정윤회 게이트'라고 성격규정하며 적극적으로 이슈화를 시도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윤회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 등 이른바 '십상시' 들의 국정개입 농단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분명한 입장과 엄정한 처벌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만큼 진실 규명의 열쇠는 이제 사법당국에 맡기게 됐다"면서 "사법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장주영기자 boa@

## '종북 논란' 신은미, 야 의원 초청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종북 발언 시비'에 휘말린 재미동포 신은미씨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신씨와 천주교 계열 민간단체인 '평화3000' 의 박창일 신부를 초청해 오는 4일 서울 김대중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연다"며 "단지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신씨에 대해 잘못된 공격이 이어지고 있지만 막상 신씨가 펴낸 방북기는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도 우수도서로 선정된 바 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미씨 초청 토론회 장소는 김대중도서관에서는 여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종북 논란을 빚고 있는 인물을 불러 굳이 토론회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채신웅기자

## 해병대 팔각모 대신 삼각모 쓴다

해병대가 장병에게 게리슨모(삼각모)를 보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게리슨모 도입에 대한 검토를 지난달 30일에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사령부를 비롯한 일부 부대에서 게리슨모를 시험 착용하고 내년 중 전 부대에 본격 공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의 게리슨모는 공군의 게리슨모와 형태와 모양이 같다. 다만 푸른색인 공군 게리슨모와 달리 국방색으로 바탕에 무늬가 없이 고안됐다.

게리슨모에 다는 계급장도 현재와 같은 색깔과 모양이다. 우선 간부용으로만 내년 중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병대의 게리슨모 착용에 대해 일부 예비역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팔각모 세무워커 빨간 명찰은 해병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게리슨모는 근무복을 입을 때만 쓰고 전투복을 입을 때는 팔각모를 쓰게 될 것"이라며 "미국 해병대도 행사 때는 게리슨모를 쓴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까지 팔각모와 게리슨모를 혼용 착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수영기자

### 1심부터 부장판사 배치

사법부가 재판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1심부터 경륜과 법률지식이 풍부한 경력 15년차 이상의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배치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마련, 이달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1심 집중' 기조에 따라 재판제도와 사법행정 분야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법원이 당사자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만족스러운 심리를 하고 적정한 결론을 낸다면 단 한 번의 재판만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상승과 함께 급증하는 상고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편안은 1심 재판역량 강화 차원에서 4년 내에 전체 단독재판장의 50% 이상을 부장판사로 채우기로 했다. /장주영기자

# 러 핵연구소에 北 연구원

### 파견 기술 습득 주장 나와…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

북한이 러시아 드브나 합동원자핵연구소(JINR)에 연구원을 파견, 핵기술을 습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매년 핵물리학자 등을 파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1월에는 북한 연구원 6명이 방사성물질의 폐기처리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체류 중인 것이 확인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북한은 JINR에 지난해 40만 달러, 올해 47만 달러의 분담금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핵기술 훈련과 원조 등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연구원을 JINR에 파견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산케이는 지적했다.

JINR은 1956년 당시 소련이 구 공산권 국가의 원자력 연구를 위해 모스크바 북부에 개설한 연구소다. 현재 북한, 몽골, 쿠바 등 18개 회원국이 이 곳에서 핵기술을 공동으로 연구 중이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뤄 논란을 일으킨 미국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 영화사가 최근 해킹을 당했다.

소니 측은 이번 사이버 공격이 영화 개봉을 앞두고 일어난 점에 주목, 북한 정부와 관련된 해커들의 소행이 아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최룡해 러시아 방문** 최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러시아 박물관에서 무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 위원장(가운데)과 새누리당 이학재 여당 간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야당 간사가 지난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법정 심사시한 인 이날 자정까지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완성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하루 또는 이틀 더 예산안을 더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뒤 취재진의 추가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시간 촉박"… 예산안 심사 이틀 연장

### 2일 처리시한 고수…증액 기싸움 계속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지난달 30일 합의했다.

여야는 이틀간 3조 원 정도의 증액 규모를 심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사실상 이틀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정 심사 기한인 11월 30일 자정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완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하루나 이틀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이날 전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 시한인 11월 30일 자정 전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결위 활동은 종료되고 정부 원안이 12월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예산안 수정안 제출에 심사 기간을 1일이나 2일까지 연장해도 여야가 이미 합의한 2일에는 본회의에서 정부안은 폐기하고 여야 합의의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는 법정 처리시한인 2일까지 예산을 더 심사해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은 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는 올해도 예산안 심사 시한은 넘기게 됐지만, 법정 처리 시한은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휴일인 이날도 예산소위를 가동해 이틀째 증액심사를 계속했으나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 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3조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경조정재원 등의 확보에 주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에 나선 상황이다.

2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서영웅기자 cyclone@

# 인천 AG경기장 매각되나

## 운영비만 연간 100억원 이상 들어 검토

아시안게임 경기장 활용방안 수립에 골치를 썩고 있는 인천시가 경기장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한구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경기장 매각은 관련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주경기장, 남동·선학·계양경기장의 경우 대규모 유휴 부지와 연계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민간에서 제안이 있으면 관리비 부담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매각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7개 신설 경기장 건설에 총 1조7224억원의 예산을 썼다.

이 중 4677억원(27%)은 국비를 지원받아 충당했고 나머지 1조2523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거쳐 시비로 마련했다.

그러나 대회 후 이들 경기장은 시 재정을 억누르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경기장의 연간 운영비가 50억원에 이르는 등 신설 경기장 운영비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주경기장에 할인점·아울렛·영화관 등 수익시설 유치를 추진하는 등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현재까지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시는 그러나 수익시설 유치를 위한 재산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가 최근 마무리된 만큼 수익시설 유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다음 달 중 주경기장 사업설명회를 열고 내년 2월 입찰을 거쳐 할인점·아울렛·영화관 등 수익시설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경기장 외부공간은 도시형 캠핑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으로 조성해 가급적 기존 경기장 기능을 유지하며 수익 창출이 가능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소량만 드립니다"** 여야가 담뱃값 인상을 합의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상점주인이 담배를 소량만 판다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판매대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 국과수 "신해철, 수술 중 손상으로 천공 가능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결과는 고(故) 신해철(46)씨의 사망이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의 손상 때문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다만 국과수는 천공이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결국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 측의 의료과실 여부가 명쾌하게 결론나지 않으면서 공은 의사협회로 넘어가게 됐다.

2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소장에서 발생한 염증이 심낭으로 전이됐고 심정지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1차 부검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장 천공에 대해선 "복강경 수술을 할 때나 수술과정과 연관해 천공 됐거나 수술 도중 발생한 손상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 지연성으로 천공됐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과수는 심낭에서 발견된 0.3㎝ 크기의 천공 역시 같은 방식으로 생겼을 수 있다고 봤다.

투관침에 장기가 찔렸거나 혹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천공으로 발전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과수는 위밴드 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위용적을 줄이는 효과의 수술로 추정되나 이것을 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사협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금껏 S병원 측은 수술 과정에서 약화된 위벽을 강화한 것일 뿐 위축소 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 수능당일 '소란 수험생 방치' 학부모 소송 검토

평택지역 고3 수험생 학부모들이 수능당일 한 수험생이 소란을 피우는데도 감독관의 관리 미흡으로 나머지 수험생이 피해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2015학년도 대입수학능력평가 경기도교육청 34지구 한 고교 시험실에서 시험을 본 한 고교 3학년 1~3반 학생 학부모들이다.

시험당일 한 20대 수험생이 1교시 시험시작 직전 OMR 답안지를 받고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正)자가 뭔가요?"라며 큰 소리로 질문하는가 하면 시험 도중 반복적으로 트림하고 기지개를 펴거나 신발끈을 묶는 등 주변 학생들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수험생들은 쉬는 시간 교무실을 찾아가 "시험에 방해되니 교실을 옮겨주거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3교시가 끝날 때까지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관리소홀을 문제삼으며 도교육청에 민원제기를 하는 한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에이즈의 날 희망의 무지개** 세계 에이즈의 날(12월1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오후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국립 요양병원 마련 등을 요구하며 문화제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 "LG, LTE 개발 전 연구원에 보상"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모(37)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모씨와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회사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받아 이듬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그 뒤 회사는 팬택으로부터 66억5천만원을 받고 이씨 발명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팔았다.

이듬해 퇴사한 이씨는 4년 뒤인 2013년 7월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5500만원의 일부인 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기여도를 2.5%로 제한,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LG전자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을 했다"설명했다.

## 일가족 교통사고 5명 사망

아버지 제사를 지르고 집으로 돌아가던 30대 여성 일가족 5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0시 24분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38번 국도 대림아파트로부터 평택방면 약 500m 지점에서 박모(31·여)씨가 운전하던 레이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9.5t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아 전소됐다.

이 사고로 박씨와 박씨의 한 살배기 아들, 어머니 김모(58·여)씨, 12살·8살 난 외조카 2명 등 5명이 숨졌다.

박씨는 전날 밤 인천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제사를 지낸 뒤 평택시 동삭동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사고가 난 지점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약 500m 못 미친 부근에 커브길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도로는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트럭 운전자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갓길에 차를 세워두는 곳"이라며 "사고 당시에도 갓길에는 2~3대의 트럭이 주차돼 있었다"고 전했다.

## 서울여대 '슈가로의 초대'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지난달 29일 교내 5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과 강의실에서 2015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슈가(SWU)로의 초대'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행사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입생 및 선후배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대학생활 조기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학년도 신입생 200여명이 참석하는 '슈가로의 초대'에는 기독교학과 장경철 교수의 대학생활 적응 특강, 각 행정부서의 대학생활 및 프로그램 안내, 학과별 선배와의 만남의 자리인 재학생 멘토링 등이 마련돼 있다.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여한 상명대 구기헌 총장(오른쪽에서 세번째)

## 상명대, 김장나누기 행사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부터 부암동 주민센터에서 '상명대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개최하였다. 상명대 구기헌 총장 및 사회봉사단 학생들 70여명이 직접 200여포기에 달하는 김장을 담그고 이를 부암동 인근 소외계층 60곳에 생활물품과 함께 전달하는 뜻깊은 봉사였다.

# 美 인종차별 철폐촉구 행진

## 퍼거슨~제퍼슨 217㎞ '정의를 위한 여정'

미국에서 인종차별 종식과 사법체계 개혁을 촉구하는 '정의를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사망한 퍼거슨시 캔필드 그린 아파트 앞을 출발, 제이 닉슨 주지사의 관사가 있는 제퍼슨시티까지 217㎞를 일주일간 평화 행진을 할 예정이다.

NAACP는 브라운을 살해한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을 비롯해 미 전역 경찰에 대한 훈련 개혁, 흑인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기 위해 행진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NAACP 회장은 "사법 개혁이 이뤄지고 경찰의 잘못된 행동이 바로잡힐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평화 행진은 우리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첫 번째 시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NAACP는 경찰의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피부색이나 인종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기법)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의를 위한 여정' 행진 참가자들이 29일(현지시간) 미주리주 퍼거슨 시내를 통과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정의를 위한 여정은 약 100명의 인원으로 출발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번 행진은 1960년대 흑인 인권 향상을 위해 미 전역에서 이뤄진 대규모 행진을 연상시킨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NAACP는 행진 최종 구간에 NAACP 지도부 등 1000명이 합류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춤했던 퍼거슨 시위가 이번 행진으로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한편 윌슨 경관이 최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윌슨 경관의 변호사인은 그의 사직 소식을 전하며 윌슨의 사표가 즉각 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윌슨 경관은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난 8월 9일부터 현재까지 유직 상태였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사르코지 화려한 복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프랑스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 대표로 뽑힌 뒤 파리 당사에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기뻐하고 있다. UMP 당수로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한 사르코지는 당내 차기 대선 후보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로이터 연합뉴스

# 에볼라 사망자 이틀간 1200명 왜?



'죽음의 바이러스'로 불리는 에볼라로 인한 사망자가 7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되지 않았던 사망자가 밝혀지면서 이틀 만에 1200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이 1만6169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6928명이라고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라이베리아에서 7244명이 에볼라에 감염되고 이 가운데 4181명이 숨졌다. 최근 빠른 속도로 에볼라가 퍼지고 있는 시에라리온에서는 감염자가 6802명, 사망자는 1461명으로 집계됐다.

기니에서는 2123명이 감염됐으며 1284명이 숨졌다.

특히 26일 집계에서 3016명이었던 라이베리아의 사망자 수가 28일 4181명으로 훌쩍 뛰었다. 이는 미보고 사례가 통계에 새로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WHO의 집계치는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6일 발표한 사망자 수 5674명보다 약 1200명이나 늘어났다.

WHO 관계자는 "아직에도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70%에 달하며 감염 사망 사례를 집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보고된 사례 이외에도 사망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 헉! 휴대전화 '모래 배터리'

metro HongKong

破假電池混入泥

중국에서 모래가 가득한 가짜 휴대전화 배터리가 발견됐다.

선전시 경찰은 최근 룽화신구의 중빈이 전자과학기술원에서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을 적발했다.

노동자 10여 명은 두 개 생산 라인에서 보조 배터리를 조립해 샤오미, 이오이 등 브랜드 제품으로 포장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대량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와 영수증, 제품판매 기록을 발견했다. 조립이 완료된 보조 배터리를 열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6개 중 3개에 모래가 가득 차 있었다.

관계자는 이미 구속됐고, 경찰은 현재 제품 수량을 파악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은 근로자가 일한 지 얼마 안 돼 상황을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 공장 사장도 가짜 제품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

/정리=조선미기자

# 고속도로 시비 끝 사망

metro France

Seine-et-Marne : Il lui demande de couper ses phares et meurt heurté

최근 프랑스 국도 RN3에서 헤드라이트의 밝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뒤에 있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너무 눈부시다고 생각했고 고속도로가 정체된 틈에 이를 운전자에게 말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 그가 뒷자리 운전자에 헤드라이트를 꺼달라고 말하자 운전자는 그를 들이받았다.

조사에 의하면 운전자는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역주행해 도망친 것으로 보인다.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 좀비복장 결혼 금지?

metro Russia

### 혼인신고기관 규정 제안

Жениться надо серьёзно и навсегда

러시아 의원이 작스(혼인신고기관)에 복장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자고 제안했다.

알렉세이 주라브료프 국가두마(하원) 의원은 "좀비 복장을 한 커플과 하객의 좀비 결혼식이 거행되는 등 예절과 전통을 무시한 결혼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런 괴기한 결혼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라브료프 의원의 주장에 대한 작스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여직원은 "이상한 복장으로 혼인신고를 하러 온 커플을 보면 난감하다"며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색 복장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것 같다"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고 주장하는 직원도 있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귀신 소복, 괴물 의상 등 독특한 복장으로 작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마리헬 비야비츠 기자·정리=조선미기자

www.icevalley.kr

밀양시

# 밀양이 춤춘다 밀양을 노래한다

일시 _ 2014년 **12**월 **6**일(토) ~ **7**(일)

장소 _ 서울 청계천광장

주관 _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영농조합법인

후원 _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농협

**12월 6일 _ 토**

얼음골사과요리경연대회

**12월 7일 _ 일**

얼음골사과축제 참여이벤트(사과 무료증정)

밀양얼음골사과 서울나들이공연

## 밀양얼음골사과 드시러 오세요~~!!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영농조합법인

# “보편적 감동의 예술영화 만나보실래요?”

사람이야기

**■예술영화관 씨네큐브 이끄는 최경미 티캐스트 자장**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

아무르

## “관객들의 문화 쉼터, 소명의식으로 일해” 내년 개관 15주년, 젊은 관객층 유입 노력

헤어라인으로 유명한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지하에 있는 씨네큐브는 지난 14년 동안 작품성 있는 영화들을 꾸준히 소개해온 예술영화관이다. 이 작지만 의미 있는 극장의 운영 전반을 이끌고 있는 이가 바로 티캐스트 영화사업파트 최경미 자장이다.

온라인 마케팅 업계에서 일했던 그는 지난 2006년 극장 온라인 홍보를 시작으로 영화 관련 일을 시작했다. 2007년부터 티캐스트에 들어와 프로그래밍, 극장 운영, 이벤트·프로모션 등 극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극장의 색깔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다. 최경미 자장은 씨네큐브만의 지난 프로그래밍의 강점으로 "작품성과 예술성을 기준으로 보편적이면서 감동적인 작품"을 꼽았다.

"예술영화에는 어려운 영화도 있지만 대중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도 있잖아요. 작품성과 예술성이 있으면서도 어렵지 않고 보편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서울아트시네마와 CGV 아트하우스의 중간에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씨네큐브와 같은 예술영화관은 대형 멀티플렉스의 틈바구니 속에서 보다 다양한 영화를 소개하는 창구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코아아트홀, 씨네코아, 뤼미에르 나다 등 대표적인 예술영화관들이 여러 이유로 폐관했다. 지금 서울에 남아 있는 예술영화관은 씨네큐브를 비롯해 KT&G상상마당, 씨네코드 선재, 아트하우스 모모, 그리고 시네마테크인 서울아트시네마와 한국영상자료원 정도일 뿐이다.

씨네큐브도 한때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지난 2009년 백두대간으로부터 지금의 티캐스트가 운영 전반을 인수인계 받으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씨네큐브는 이후로도 변함없는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예술영화관의 위기 속에서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최경미 자장은 "관객들이 씨네큐브를 단순한 영화관이 아닌 문화적인 쉼터이자 공적인 예술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일종의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 선정에 있어서도 "이전과 부끄럽지 않은 좋은 작품"을 선정하려 한다고 했다.

극장 일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고심 끝에 선정한 영화가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순간이다. 지난 2012년 개봉해 8만여 명의 관객을 모은 '아무르'를 비롯해 '그을린 사랑' '우리도 사랑일까' 등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물론 어렵게 고른 작품이 기대만큼 관객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도 있다. 최근 개봉한 가와세 나오미 감독의 '소년, 소녀 그리고 바다'는 아쉬지 않은 작품이었음에도 많은 관객과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한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예술영화는 최근 들어 점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소위 '씨네필'로 불리는 영화 팬들의 비중이 줄어드는 동시에 그 빈자리를 채울 젊은 관객이 생겨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최경미 자장의 고민 또한 보다 많은 관객을 씨네큐브로 끌어오는 것이다.

"아직은 연평균 약 25만명의 관객들이 씨네큐브를 찾고 있어요. 관객 비율도 20~30대 관객이 많은 편이고요. 다만 해가 거듭될수록 중장년층 관객의 비중이 늘어나는 대신 젊은 관객의 비중이 줄어들어서 고민이에요. 새로운 관객이 계속 유입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젊은 관객들이 예술영화를 극장에서 보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씨네큐브의 연말 라인업은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 '마미' '멘 투 더 스카이' 등 간영화제 화제작이다. 내년에는 개관 15주년을 기념해 관객 사랑에 보답할 다양한 행사도 계획 중이다. 최경미 자장은 "개관 20주년 때는 지금보다 더 상황이 좋아졌으면 한다"며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20주년 때는 한 걸음 더 도약해 나아갈 수 있는 극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장성호기자 sclsch@

# LG, 에티오피아 주민 자립지원 나선다

## KOICA와 아디스아바바에 'LG-KOICA 직업학교' 문열어

LG가 한국전 참전국이자 유엔이 정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에서 주민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잇따라 펼치고 있다.

LG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KOICA)와 함께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LG-KOICA 희망 직업학교'의 개교식을 가졌다.

이는 한국이 에티오피아에서 지은 첫번째 직업학교다. 산업발전을 이끌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현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에티오피아의 자립 기반 마련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개교식에는 김원기 LG 부사장, 김문환 주에티오피아 대사, 디리바 쿠마 아디스아바바 시장, 시페로 사구테 에티오피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학교관계자,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직업학교는 3년 과정의 직업훈련 기관이다. IT기기/통신멀티미디어/가전사무기기 수리 등 총 3개 반에서 최대 300여명을 교육할 수 있으며, LG는 입학생 전원에게 3년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1만2000㎡(3600평)크기 부지에 연면적 1900㎡(575평), 지상1층 규모이며 ▲실습실 ▲이론 교육실 ▲컴퓨터실을 비롯해 ▲농구장 ▲식당 등 부대시설을 갖췄다.

LG와 NGO 단체 월드투게더는 직업학교 운영을 전담하고, 코이카는 저개발국에서 해온 직업훈련 노하우를 활용해 직업교육 컨설팅을 맡는다.

특히 LG는 직업학교 학생들에게 충분한 실습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에 필요한 스마트폰, 가전, 컴퓨터 등 전자 제품 일체를 LG전자 새 제품으로 지원하고, 향후 LG전자 수리 명장을 현지로 초청하여 수리 기술 특강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학생들이 3년 과정 수료 후 원활히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에티오피아의 전기·전자 관련 업계와 취업 연계 산학협력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하균기자 kgg@

## 최성준 방통위원장,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직원 30여명과 함께 서울 강남 개포동의 구룡마을을 방문해 연탄배달 봉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최 방통위원장은 이날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등에 연탄 3000장을 기증하고, 화재에 취약한 마을의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용 CCTV설치를 지원했다.

최 위원장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뜻 깊은 시간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illegible]

# 경영수업 '끝' 실전 모드로

## 재계 오너가 3·4세 잇따라 임원 승진··· 선진 경영기법 장전

재계 오너가 3·4세들이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나선다. 각 그룹의 정기인사에서 잇따라 임원으로 승진했거나 승진을 앞두고 있다.

사원에서 부장까지는 경영 수업을 받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경영 능력을 평가받는 실전 모드에 돌입한 셈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구본무 LG그룹 회장 장남 구광모(36·사진 왼쪽) LG 시너지팀 부장은 지난 27일 상무로 승진했다. 2006년 LG전자에 대리로 입사한 이후 8년 만에 별을 달았다.

구 신임 상무는 지난해 4월 차장 승진 2년 만에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E사업본부 부장으로 승진했다. 구 상무는 LG세탁기를 글로벌 1위 브랜드로 만든 조성진 사장을 보좌하면서 생활가전 제품 상품전략기획 업무를 익혔다.

구 상무는 LG 지분 4.75%를 보유해 개인으로는 구본무 회장(10.79%)과 구본준 부회장(7.57%),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5.03%)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의 장남 정기선(31·가운데) 상무는 지난 10월 부장에서 승진했다. 정 상무는 별을 달면서 바로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실로 전진 배치됐다.

그는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에 재입사해 경영기획팀과 선박영업부 부장을 겸임하면서 경영수업을 받아왔다.

정 상무는 그룹 기획실장을 겸하고 있는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을 보좌하면서 3세 경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솔라원 영업실장(31·오른쪽)은 내년 2·3월 예정인 정기 인사에서 상무 승진이 확실시된다.

최근 삼성과 한화의 빅딜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 실장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실장의 그룹내 위상은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김 실장은 2010년 한화 입사 후 한화솔라원 등기이사, 기획실장과 한화큐셀 전략마케팅실장(CSO)을 역임한 후 지난 9월 한화솔라원으로 복귀해 영업총괄을 맡고 있다.

한화큐셀 재직 당시 전략·사업개발 실무를 직접 챙기며 흑자전환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허창수 GS그룹의 장남 허윤홍 상무(35)의 전무 승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허 상무는 2002년 평사원 입사 후 10년 만인 2012년 임원이 됐다. /박상훈기자 park@metroseoul.co.kr

##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연중 최고치 기록

11월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넘어섰다.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은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88.8%로 잠정 집계돼 이전 최고점이던 지난 9월(9·1 부동산 대책 직후)의 낙찰가율 88.4%를 밀어내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4월(91.1%) 이래 가장 높은 낙찰가율이다.

권역별로 수도권 소재 아파트 경매시장은 연이은 낙찰가율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반영되며 보합세로 접어든 반면, 비수도권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달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87.6%로 전월 대비 1.6%p 하락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지난달 낙찰가율 90%를 넘어 화제가 됐던 서울은 전월(90.5%)보다 2.5%p 내린 88%를 기록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 낙찰가율이 전월 86.9%에서 이달 85.4%로 1.5%p 하락했고, 경기도 낙찰가율도 전월 89%에서 이달 88%로 1%p 내려 앉았다.

반면 비수도권 소재 아파트 낙찰가율은 92.3%를 기록, 전월 84.8%에서 7.5%p 급등했다. 비수도권 지역 중 특히 충청남도 아파트의 낙찰가율 상승폭이 가장 컸다. 충남 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월 62.8%에서 이달 87.5%로 24.7%p 올라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이 10월(77.7%)보다 16.3%p 오른 이달 93.9%의 낙찰가율을 보였다.

특히 제주도는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 전국에서 도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제주는 지난달 93.8%에서 이달 103%로 9.2%포인트 상승했다. 광역시별로는 대구가 107.2%를 기록해 최고였다. /김두지기자

다문화 무역인 클럽 취업·창업 포럼 KOTRA는 지난 달 ?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무역인들의 취·창업지원을 위해 '다문화 무역인 클럽 취·창업 포럼'을 관산사 공화·학술5관당에서 개최했다. /코트라 제공

## 4년제 대졸 신입 초임, 월 278만원

### 경총, 2014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 지난해보다 4.7%↑

올해 4년제 대학졸업 신입사원의 초임(상여금 포함)은 월 278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65만9000원에서 4.7% 상승한 수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직무대행 김영배)가 최근 3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규모별로 100~299인 기업이 242만9000원, 300~499인 269만1000원, 500~999인 278만1000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대졸초임은 지난해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도 2.2% 상승한 306만6000원이었다.

직급별 초임급은 부장 613만원, 차장 524만원, 과장 455만7000원, 대리 37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 247만1000원, 고졸 사무직과 고졸 생산직은 각각 204만2000원, 221만8000원이었다.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의 임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은 8.2%로 전년(4.0%)에 비해 4.2%p 상승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변수(?)로 일부 기업에서 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임금수준은 미실시 기업에 비해 직급별로 5~14% 정도 높게 나타났다. 직급별로 부장의 경우 연봉제 실시 기업의 임금이 미실시 기업에 비해 933만4000원(연봉 기준) 더 높았다. 차장 474만1000원, 과장 438만8000원, 대리 321만7000원이었다. /양제근기자



### 뉴스&뉴스

삼성, 파워봇 체험행사 삼성전자는 지난 달 27일 수원 은누리아트를 대극장에서 펼친 육아 전문 프로그램 '에터니티 스쿨'에서 삼성 파워봇 체험 행사를 열었다. /삼성전자 제공

### 항공사 과징금 100억 상향

●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가 내는 과징금 한도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랐다.

종전 과징금 기준은 2009년 마련한 것으로 액수가 적어 행정처분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운항정지 일수 18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늘어났다. 운항정지 7일은 10일로, 15·20일은 30일로 조정됐다. /정숙이기자

### LG유플러스·KT 과징금

● 독점적으로 보유한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한 LG유플러스·KT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메시징 시장의 경쟁사업자를 사실상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2억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조현군기자

로또복권 제628회

| 1등 당첨번호 | | | | | | 2등 보너스숫자 |
|---|---|---|---|---|---|---|
| 13 | 14 | 26 | 33 | 40 | 43 | 15 |

| 등위 | 당첨방법 | 당첨금(원) |
|---|---|---|
| 1등 | 6개 숫자 일치 | 1,717,831,117 |
| 2등 |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 56,891,515 |
| 3등 | 5개 숫자 일치 | 1,216,996 |
| 4등 | 4개 숫자 일치 | 50,000 |
| 5등 | 3개 숫자 일치 | 5,000 |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로구 중학동(?) 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형곤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4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 제01-???

# 카드 수난시대 속 우리카드 '돌풍'

## '가나다 상품' 히트 점유율 1년새 1.3% 상승… 순익 800억 넘길듯

대규모 정보유출과 화재 등 각종 사고로 다사다난했던 올해 카드업계에 우리카드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우리은행에서 분사한 우리카드의 시장점유율(MS)은 분사 직전 7.3%에서 올 3분기 현재 8.6%를 기록했다.

분사 1년 만에 MS가 1.3%p나 상승, 성장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시장점유율 1%를 끌어올리기 위해 약 1000억원의 마케팅 비용이 든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매각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그만큼의 비용은 지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려 업계가 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카드는 카드사용액이 올 2분기 2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나 증가했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도 644억원으로 집계돼 올해 목표였던 8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막내 카드사에서 중위권 카드사를 뛰어넘는 반격을 꾀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는 올해 초 불거진 정보유출 사태를 피해가는 한편, 가나다 체크·신용카드와 VIP급 카드 시리즈들을 잇따라 출시하는 등 카드상품의 선전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강원 우리카드 사장이 상품명부터 혜택과 라인업까지 직접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가나다 카드는 지난 3월과 8월 말 출시 이래 11월 말 현재 신용카드가 50만좌, 체크카드는 35만좌 발급됐다.

기존 130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단순·체계화해 6종의 카드로 재구성한 시리즈 상품이 큰 히트를 친 것이다.

고객은 카드 사용 패턴에 따라 주요업종에서 폭넓은 혜택, 선택업종에서 높은 혜택, 모든 업종에서 조건 없는 혜택 중 할인형과 포인트형 상품으로 나눠 선택할 수 있다.

NFC 터치로그인 서비스도 탑재돼 이용대금명세서부터 선결제와 이벤트정보 등의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차별화된 혜택과 프리미엄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로얄블루 시리즈'도 있다.

슈퍼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위해 나온 이 상품은 단 1000명에게만 한정 발급되는 '로얄블루1000', 커리어우먼을 위한 '로얄블루L', 70만원 상당의 기프트가 제공되는 '로얄블루' 3종이다.

고객은 연회비 이상의 기프트를 제공하는 '트리플 리워드(Triple Reward)', 쓸수록 혜택이 커지고 선택이 다양한 '트리플 초이스(Triple Choice)', 호텔·공항·골프에 특화된 '트리플 베네핏(Triple Benefit)' 서비스를 모두 누릴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로얄블루는 근대 유럽왕실의 상징색으로서 VIP 고객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이에 걸맞는 차별화된 혜택과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로얄블루 시리즈가 출시됨으로써 '가나다 신용·체크카드'에 이어 프리미엄카드까지 상품 라인업이 모두 완성됐다"며 "신용·체크카드시장 모두에서 시장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 내년 재추진

우리은행 경영권(지분 30%) 매각에 4번째 실패한 당국이 내년 상반기 중 재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박상용 연세대교수)는 오는 12월 4일 회의를 열어 후속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은행 경영권 입찰이 실패한 이유에 대한 진단과 매각 조건의 문제점, 현재 시장 상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쟁입찰로 추진한 경영권 매각 방식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28일 실시한 우리은행 경영권 입찰에 불참했다. 이날 참여한 곳은 중국 안방보험뿐으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무산됐다.

안방보험은 우리은행 인수를 검토하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당국의 규제 등을 이유로 포기했다는 설이 나돌았지만 글로벌 금융사로서의 도약을 위해 막판 입찰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은행 인수에 참여가 예상됐던 교보생명은 이날 경영권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지분 34%를 가진 개인 최대주주라는 점, 보험업법상 교보생명이 우리은행 인수를 위해 직접 조달 가능한 자금이 '자산의 3%(약 1조3000억원)'에 그쳐 투자자금 모으기 쉽지 않은 점 등이 끝내 발목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이기자

## KB국민은행, '위안화 예금 특판' 시행

KB국민은행이 기업과 개인고객에게 위안화 예금을 판매하고 'KB 플러스 스타 위안화(CNY) 외화예금 특판'을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위안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입기업의 위안화 무역거래 활성화 지원과 개인 고객들의 위안화 투자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위안화 정기예금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위안화 예금을 함께 판매한다.

KB국민은행은 위안화 예금 판매를 기념해 위안화로 가입하는 '외화정기예금'과 'KB적립식 외화정기예금'에 대해 'KB 플러스 스타 위안화(CNY) 외화예금 특판'을 시행한다. 이 특판은 개인과 기업 모두 내년 6월 30일까지 2억 위안 한도로, 은행에서 기간별로 고시하는 기본 이자율에 0.3%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현재 KB국민은행이 고시하는 1년 만기 위안화 정기예금의 기본이자율 2.9%에 우대금리 0.3%p를 더하면 3.2%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3년 범위 내에서 일 단위와 월 단위 가입이 가능해 기업고객은 위안화 유동자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보통예금도 위안화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새 외화예금을 개설, 중국 위안화 거래 고객은 물론 기존 KB국민은행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을 거래하던 고객도 기존 통장을 활용해 위안화를 거래할 수 있다.

/정민구기자

금경원 Q&A

## 소액의료비 보험처리 쉬워진다

**Q. 10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에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내년 1월부터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소액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의 경우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통원치료를 받은 병원에 처방전을 2부 요구한 뒤, 이를 보험금 청구서·병원영수증과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돼야 합니다.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등)이거나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중위험·중수익 채권 '관심'

## 中 자본시장 개방 맞물려 위안화 신상품 러시

저금리 기조로 중위험·중수익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면서 내년에도 채권을 향한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맞물려 위안화 채권 신상품이 쏟아져나오는 등 투자자들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키는 상품이 속속 등장했다.

지난달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자산운용사들은 이달 들어 중국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잇따라 내놨다.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은 '알리안츠 위안화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을 지난달 25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룩셈부르크에 등록된 역외위안화 채권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유안타증권도 지난달 5일부터 중국 본토채권에 투자하는 '동양자이나본토채권증권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를 판매 중이다.

중국 투자 수요가 늘면서 달러화 표시 중국 채권을 공략하는 상품도 등장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달 17일부터 '한국투자 달러표시 중국국유기업 목표전환형 펀드(채권혼합)'를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중국 주요 국유기업들이 미 달러화 표시로 발행한 채권에 주로 투자한다.

중위험·중수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채권 투자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국내채권형펀드에 5460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펀드에 5252억원이 유입된 점을 고려하면 주식 투자수요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소폭 앞섰다.

해외채권형펀드 중에서는 최근 1개월간 글로벌채권(-51억원), 신흥국채권(-88억원) 등이 일제히 자금 이탈을 보인 가운데 아시아퍼시픽채권에만 251억원 들어왔다.

채권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채권에 대한 투자매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형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까지도 채권에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며 "신흥국을 아시아 남미 동유럽으로 구분해 볼 때 내년 아시아 채권이 가장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채권시장의 금리가 일부 신흥국을 제외하면 연평 국면에 접어든 점이 긍정적으로 풀이됐다.

고은진 하나대투증권 자산분석실 팀장은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적 통화정책 기조로 볼 때 내년 변동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정 금리 수준에 만족한다면 채권 투자가 괜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채권은 투자할 때 유의할 점도 있다.

고 팀장은 "가령 위안화 상품의 경우 채권 발행자가 정부가 아니라 일반 기업 등 민간이라면 신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운용사의 운용능력과 개별 상품별 특성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자금세탁 방지 국무총리 표창 수상** 메리츠화재가 제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 회사는 영업점별 준법지원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영업현장에서부터 자금세탁방지(AML)제도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남재호(오른쪽) 메리츠화재 사장이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있다. /메리츠화재 제공

# 요긴한 과일 껍질 활용법?

### 천순이 주부 경제학

과일은 몸에 좋고 맛도 좋아 사계절 내내 사랑받지만 한가득 쌓여있는 과일껍질은 늘 처치 곤란이다. 그래서 깎아놓은 과일껍질은 바로 휴지통으로 직행하기 일쑤다. 그러나 과일껍질도 잘만 활용하면 우리 일상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과껍질'은 음식이 까맣게 눌러 붙은 냄비에 사과껍질과 물을 넣고, 10분 정도 끓이면 감쪽같이 떨어진다. 사과껍질을 곱게 갈아 고기 사이에 뿌려 재우면 육질도 부드러워지고 맛도 좋아진다. 집안에 풍기는 악취가 고민이라면, 사과껍질을 이용해 보자. 사과껍질을 햇빛에 바짝 말린 뒤 지퍼백이나 페트병에 넣어 부엌이나 욕실 등에 넣어두면 향긋한 사과 향이 집안에 퍼진다.

'참외껍질'도 악취 제거에 효과적이다. 참외껍질을 말려 냉장고에 넣어두면, 퀴퀴한 음식 냄새를 없앨 수 있다. 참외껍질을 신발장이나 신발 속에 넣어 둬도 축축한 습기는 물론 냄새까지 잡아준다.

귤은 껍질을 말려 차로 우려 먹어도 좋다. 귤껍질을 말릴 때는 천연세정제로 여러 번 씻은 후에 잘게 잘라 햇빛에 말려주면 된다. 귤껍질은 생선이나 고기를 요리한 팬을 닦을 때 사용하면 기름기와 냄새가 효과적으로 제거된다. 냄비에 밴 생선 비린내도 귤 껍질을 물에 넣고 1분 정도 끓이면 없어진다. 잘 말린 귤껍질을 면 속옷 삶을 때 3~4개 정도 넣으면 왁스 성분이 우러나와 섬유유연제 없이도 옷이 부드러워진다.

이밖에 '바나나껍질'로 가죽을 문질러주고 다시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면, 가죽의 광택이 살아난다. 바나나껍질 속에 타닌이라는 성분은 가죽의 얼룩을 쉽게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또 바나나껍질을 햇빛이나 전자렌지를 이용해 바짝 말린 후 잘게 잘라 화분 위에 올려주면, 천연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바나나껍질에는 사람질, 섬유질, 당분, 수분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담인 물로 씻으면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김선지기자 min@

# 생·손보 통합 조회서비스 오늘부터

1일부터 가입보험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조회서비스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중 어느 한 곳에서만 보험가입 조회를 신청해도 보험가입 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단 보험계약에 한하며 새마을금고·신협·우체국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손보협회가 제공하는 생존자 보험가입조회제도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보험 중복가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하지만 기존에는 양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따로 조회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12월 중순부터 인터넷 조회 신청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별도로 금융사를 방문해야 했다. 공인인증서가 다른 PC에 설치된 경우 보험조회 자체가 어려워 고령층의 사용방법 숙지 미흡에 따른 불편이 컸다. /국화미기자 ...

# 신한카드 '올댓 직구' 포털 서비스 오픈

신한카드는 해외 직구 고객을 위해 자사의 생활서비스사이트인 '올댓서비스' 내에 '해외직구 서비스(이하 '올댓 직구')'를 새로 열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올댓 직구'는 블랙프라이데이나 사이버먼데이같은 성수기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해외 직구 이용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해외직구 캐시백 사이트인 '이베이츠'를 통해 아메어, 아마존, 갭프로젝트, 갭 등 560여 개의 다양한 해외 쇼핑몰과 만날 수 있다. 고객은 최대 15% 캐시백과 해외 쇼핑몰 할인정보 제공 등의 이베이즈 기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또 12월 31일까지 배송대행업체 몰테일에서 운영하는 구매대행 사이트 '테일리스트'를 이용 시 4% 캐시백 제공과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몰 '육스(YOOX)'를 '올댓 직구'를 통해 이용하면 20% 할인과 배송비 무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밖에도 해외직구 초보자와 매니아 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쇼핑 팁(Tip)과 노하우도 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의 해외직구 특화카드인 '온테인 신한 GS칼텍스 Shine카드'와 'Smart Global 신한카드'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토록 마련했다. /박성준기자 ...

**산업은행 중국개발은행과 개발금융 협력 MOU**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오른쪽)과 정즈지 중국개발은행장이 지난달 28일 중국 베이징 중국개발은행 본사에서 개발금융관련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 제공

# 국내 역사상 최대 '노다지 광맥' 개발

## 음성군 소재, 단순 추정치만 73톤… 희귀물질 안티모니 갸득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에 있는 국내 마지막 '노다지 광맥'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륙광업은 지난달 28일 서울 고등행정법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을 상대로 한 광업권 전광 등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100만평 규모 대륙광업의 주광구인 제 11930 광업권 의 금광채광권을 최종 확인한 것이다.

대륙광업은 2000년 산자부 광업진흥공사의 시추탐사 결과 6호맥 5호공 심도 150m 구간에서 금 품위

대륙광업이 2000년 무극광화대 남쪽지류에서 발견한 금맥들

851.7g/t 은 품위 522g/t의 국내 금시추 역사상 최고의 금맥을 찾았다. 현재 국제적으로 금 생산 채산성은 2g/t로 대륙광업의 광맥 채산성은 엄청나다. 단순 추정치만 73t 규모로 국제금값 기준으로 계산하면 2~3조원대에 이른다.

또 3·4·5호맥에서는 대규모 안티모니(Antimony) 층을 발견했다. 금맥은 마그마가 화강암 지층의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오면서 광화작용을 일으켜 생성되는 것으로, 지질 전문가들은 안티모니층 아래 대규모 금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원자번호 51번 원소인 안티모니 역시 자동차 등에 널리 쓰이는 납축전지의 극판, 반도체 도펀트, 활자 합금, 섬유와 플라스틱 등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하는 난연제(방화재료)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매장량이 겨우 10여 년을 지탱할 정도로 희귀한 전략적 물질이다. 현재 90% 가까이를 중국에서 생산한다.

대륙광업 관계자는 "음성군에 위치한 광맥은 무극광화대의 남쪽 맥으로 시장성이 높고 희귀자원이 많은 국가 전략광종"이라며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선진 광법으로 채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1년 장애인을 동원한 시유지 불법점거를 시작으로 정부 기관에 불법적인 민원과 압력을 행사했던 음성 꽃동네 재단과 14년 넘게 억울한 싸움을 해 왔다"며 "이번 판결로 음성 꽃동네와 충북 미래산업과의 불법적인 행정행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은경기자 eukim@metroseoul.co.kr

## 삼성 이르면 1일 사장단 인사

### 오너가 3세 승진은 없을 듯

삼성그룹이 이르면 1일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시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체제에서 진행하는 첫 인력 개편이다.

사장단 인사에 이어 후속 임원 인사와 사업부 구조조정 등이 뒤따를 예정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의 사장단 인사 규모는 15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회장(5명)을 포함한 삼성 사장단은 총 61명이지만 오너 일가 부회장·사장 3명과 미래전략실 부회장·사장 3명을 제외한 계열사 사장단은 55명이다.

전체 25% 이상이 승진 또는 자리 이동을 할 전망이다. 최근 4년간 사장단 인사 규모는 16~18명으로 매년 승진은 6~9명, 전보는 7~9명 선이었다.

화학·방산산업 부문 4개 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하면서 사장단 규모가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 매각은 내년 상반기에 성사되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는 자리가 유지된다.

올해 인사에서 오너가 3세의 승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승진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인 만큼 승진을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

부회장 승진자는 2009년부터 4년간 매년 두 명씩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승진자가 없어 올해 다시 부회장 승진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최근 4년간 임원 인사 규모는 475~501명이었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임원 인사가 예상된다.

관련 그룹의 간판인 삼성전자는 사업부 조직개편을 할 전망이다.

CE(소비자가전), IM(IT모바일), DS(부품) 3대 부문을 완제품 세트(CE·IM)와 부품 두 부문으로 합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3대 체제를 통째로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업부 내에서 사물인터넷(IoT), 기업 간 거래(B2B)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박상훈기자 ...

**소중한 사람에게 추억을 선물하세요**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모델들이 '소중한 사람에게 추억을 선물하세요' 기획전에 판매되는 카메라들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우편번호, 5자리로 개편된다

내년 8월부터 우편번호가 5자리로 개편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도로명주소 시행 정착에 맞춰 우편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우편번호 개편안을 12월 1일자로 확정 고시했다.

새우편번호로 사용하게 될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소방, 통계, 우편 등 모든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돼 국가자원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국가기초구역 단위가 하천, 철도, 대로 등 객관적인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돼 우편업무의 효율화도 기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사용하는 우편번호는 읍·면·동 및 집배원별 담당구역을 나타내는 6자리로 구성돼 있다. 내년 8월부터 변경되는 새우편번호 체계는 5자리로, 앞의 3자리까지는 시·군·구 단위를, 뒤 2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돼 총 3만4000여개가 부여돼 있다.

/이재은기자

## 연말 맞아 게임 왕중왕 대회 '풍성'

### 마니아 축제·신규 콘텐츠 공개 병행

연말을 맞아 한해를 결산하는 게임 축제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12월 첫째주에는 각종 e스포츠 행사가 겹치며 팬들을 바쁘게 할 전망이다.

e스포츠 채널 곰eXP는 12월 첫 주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e스포츠 축제를 연다.

6일 정오에는 인기 1인칭 총격게임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세계 챔피언십 4강과 결승전이 열린다. 이 대회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게임 고수들이 참가한다. 7일 오후 3시에는 올해 '스타 크래프트2'를 빛낸 스타 프로게이머들의 마지막 리그가 펼쳐진다.

넥슨도 풍성한 게임 행사를 진행한다.

6일 오후 2시 강남 넥슨아레나에서는 일소드 이용자 1000명이 참가하는 '영웅대전 시즌13' 축제가 열린다. 이날 겨울방학 업데이트 콘텐츠가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7일 오전 10시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는

던전앤파이터 F1 결투 신임대회 PR이미지.

온라인 액션 게임 '던전앤파이터' 아시아 최강 자리를 참판 한국-중국-일본 대항전이 개최된다. 던전앤파이터의 최대 오프라인 행사 '던파 페스티벌'도 함께 열린다.

한편 아프리카TV는 인기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판매 최고 챔피언을 가리는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진행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는 일정 레벨 이상의 아프리카TV 회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안준수 아프리카TV SNS플랫폼 본부장은 "천하제일 무술대회는 이번이 첫 대회다. 앞으로 시즌제 대회로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혜기자 unique@

# 착한 분양가는 착한 마케팅으로~

## 유통 분야서 시작… 건설시장으로 확대
## 소외 이웃에 쌀 기증하고 거리청소까지

신규분양 홍수속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건설사의 착한마케팅이 한창이다. 단순히 계약자의 자금부담만 낮춰주던 착한분양가 전략에서 나아가 지역민 모두를 보듬어 '사회적 기업 이미지 구축'과 '분양률 제고'라는 두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유통분야에서 활발하게 펼쳐지던 코즈마케팅, 이른바 착한 마케팅이 분양시장에도 상륙했다.

착한 마케팅이란 환경·보건·빈곤 등의 사회적 문제를 기업의 마케팅에 활용하는 전략이다. 지난 1984년 미국의 한 카드사가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일정 기금을 자유의 여신상 복원에 기부하는 마케팅을 벌여 매출이 증가한 데서 시작됐다.

그간 분양시장에서는 모델하우스 방문객에게 사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주를 이뤄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런 이벤트 이외에 착한마케팅으로 수요자들을 공략하는 곳이 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우건설이 견본주택을 개관한 '이천 설봉3차 푸르지오'는 방문객 1명마다 100원씩을 적립, 모은 돈으로 이천쌀을 구입해 이천시 복지관에 기부하는 행복나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모델하우스 방문객과 대우건설이 소외계층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기획됐다.

이와 함께 고객의 소원을 카드에 적어 소원나무에 걸어두면 소원을 이뤄주는 소원나무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개인과 가족의 행운은 물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돌아보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도 최근 부산 대연2구역 재개발조합장과 함께 남구청을 찾아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사랑의 쌀 기증식을 가졌다. 이들은 성공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시민 환원의 의미로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쌀 3000kg을 전달했다.

이부용 롯데건설 상무는 "부산에서 이렇다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12월 대구에서 대구역 센트럴자이 분양을 앞두고 사업지 인근인 태평네거리 일대를 청소하는 "KT&G와 GS건설의 깨끗한 중구 도심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 자극적인 홍보활동을 자제해 수요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분양이 끝나면 철수하는 이미지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최근에는 지역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건설사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수요자들이 많아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착한마케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 @metroseoul.co.kr

대우건설 이천 설봉3차 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서 소원나무 이벤트를 하고 있다.

허종철 부산 남구 ... 롯데건설 ... 등이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사랑의 쌀 기증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홈엔터에 최적화된 태블릿

### 꼼꼼IT리뷰

■레노버 요가 태블릿 2 프로

레노버의 '요가 태블릿 2 프로'의 제품 개발에는 할리우드 배우 애쉬튼 커처가 엔지니어로 참여했다. 커처는 기업가, 어린이, 노인 등 등이 든 연령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태블릿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태블릿이 엔터테인먼트 기기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파악해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이 제품은 집에서 영화·드라마·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에 적합한 태블릿 PC다. 노트북에 준하는 13.3인치의 QHD 해상도(2560×1440)의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시원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고화질의 영화 등을 감상할 때의 성능이 다른 태블릿 PC 제품보다 우수하다. 배터리 또한 완벽 한 충하면 15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특히 뒷면에 있는 킥스탠드라는 얇은 판은 각도를 조절해 제품을 행·홀드·스탠드·틸트 등 4가지 모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크고 선명한 디스플레이의 활용도를 높여준다.

전작 '요가 태블릿'처럼 제품을 세워놓거나 비스듬히 눕혀놓고 이용할 수 있으며 킥스탠드와 본제품 연결하는 원통형 배터리 부분을 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번에 추가된 '행 모드'는 킥스탠드에 구멍을 뚫어 이 구멍을 벽거에 고정해 제품을 걸어둘 수 있는 기능이다.

이 제품이 전작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킥스탠드와 본제품 연결하는 원통형 부분에 담겨진 피코 프로젝터다. 원통형 부분 오른쪽 끝은 제품의 전원 버튼이고 왼쪽 끝은 피코 프로젝터가 탑재됐다. 프로젝터 아래쪽에 프로젝터를 켜고 끌 수 있는 버튼도 있어 제품 내에서 별도의 설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다만 13인치가 넘는 크기에 950g의 무게는 한손으로 들기에 어렵지는 않으나 휴대하기에는 다소 무겁다. 가방 안에 넣어두고 매일 출·퇴근길에 업무용, 콘텐츠 감상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혜은기자 ...

레노버 요가 태블릿2를 행 모드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 /한국레노버 제공

**LG이노텍 희망멘토링 수료식** LG이노텍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프로그램 '희망멘토링'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들이 지난달 28일 진행된 수료식에서 8개월 간의 활동 사진을 담은 콜라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이노텍 제공

# "한중 FTA 새 돌파구"

## 기업 70% 긍정적… 내수기업도 중국 진출 의향

국내 기업 70%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중국 시장 공략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수 위주 기업의 절반 이상이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구체적인 FTA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5.0%가 한중 FTA의 영향에 대해 "중국 시장 공략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반면 중국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을 가속할 것이란 답변은 25.0%였다.

중국과의 거래가 전혀 없는 수출 비중 30% 미만의 내수 위주 기업 335개사 중 56.7%는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과의 교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중 FTA의 혜택을 예상한 응답(51.7%)이 절반을 넘겼지만 득실을 잘 모르겠다는 반응도 40.9%로 집계됐다.

업종별 혜택 기업의 비중은 의장품·패션(60.0%), 의료·바이오(57.7%), 석유화(53.6%), 금속·철강(50.0) 순으로 높았다. 상황을 유동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은 업종은 조선(60.0%), 기계장비(52.3%), 가전(45.8%) 등이다.

한중 FTA 활용계획을 세웠는지 묻자 응답기업의 1.7%만 그렇다고 답했다. 수립 중이거나 착수할 계획이라는 기업도 29.4%에 그쳤다.

응답기업 69.2%는 "아직 활용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국회 비준시기 예측 불가능(38.3%)과 중국 시장의 빠른 변화(28.0%)를 꼽았다.

중국산 저가 상품 유입 대책으로는 보조금 등 중국 정부의 부당지원 제재(35.0%), 신속한 분쟁해결(32.9%), 피해구제 절차 간소화(19.1%) 등을 주문했다.

/박상훈기자 ...

# ‘선단(船團) 이끄는 우두머리 배’의 품격

## 벤츠 S500의 라이벌… 최고출력 435마력 고성능 호화 요트 연상 변속기·부드러운 승차감이 자랑

■ 아우디 뉴 A8 60 TFSI

최고급차는 단지 차체를 키우거나 고급스런 장비를 더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메이커의 철학과 역사, 신기술을 차체에 담는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부 메이커를 제외하고 최고급차를 만들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우디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최고급차 분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BMW보다 한 수 아래로 여겨졌다. 그러다 2002년 선보인 2세대 A8(D3)가 호평을 받기 시작했고, 2009년 등장한 3세대 A8(D4)로 비로소 라이벌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번에 소개하는 뉴 A8은 디자인과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마이너 체인지 모델이다. 외관에서는 새로운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눈에 띈다. 25개의 LED 램프를 조합해 완성한 헤드램프는 아래쪽으로 꺾어지는 기존 램프 모양 대신 'ㄴ'자 모양으로 바뀌었다. 덕분에 한층 간결하고 정돈된 인상을 준다.

뉴 아우디 A8의 라인업은 최고사양인 A8 L W12와 고성능 모델 S8을 비롯해 TDI 디젤 엔진 모델 5종, TFSI 가솔린 엔진 모델 3종 등 총 10개 모델로 구성됐다. 이번에 시승한 차는 가솔린 엔진의 중심 모델인 60 TFSI다. 이 차는 V8 4.0ℓ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을 얹고 최고 출력 435마력, 최대 토크 61.2kg·m를 내는 고성능 모델이다. BMW 750Li, 메르세데스 벤츠 S500의 라이벌이다.

공회전은 나무랄 데 없이 조용하고, 정숙성은 고회전으로 올라가면서도 큰 차이가 없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차인 만큼 방음재에 각별히 신경 쓴 덕분이다. 1500~5000rpm 사이에서 발휘되는 플랫 타입의 최대 토크도 일품이다.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이 S500(1800~3500rpm), 750Li(2000~4500rpm)보다 훨씬 넓어 그만큼 활용범위가 다양하다.

호화 요트를 연상케 하는 변속기는 독일 ZF의 것이다. 8단까지 세분화된 변속기는 운전자의 가속 의도를 읽고 엔진의 빠른 반응을 이끌어낸다. 다만 R, N, D 드라이브 사이의 경계가 약간 모호해 저속에서 조작하면 불편할 때가 있다. 각 단에서 좀 더 확실하게 걸리는 느낌을 주면 좋을 듯하다.

▲신 형 차가 흔해도 늘은 뒤 뒤트리한 을 갖췄다. 운전석보다는 뒷좌석이 어울린다
▲성능 ★★★★: 연비는 ◎ 다섯 개 만점 는 날감

승차감은 한없이 부드럽다. 운전자보다는 오로지 뒷좌석 승객에 맞춘 느낌이다. 드라이빙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조절해도 안락하고 말랑말랑하다.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의 경우 이 모드를 조절했을 때 A8보다 차이가 좀 더 확실했다. 직접 운전석에 앉아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는 이라면 S클래스가 더 낫게 느껴질 수 있다.

배기량이 큰 만큼 기름을 쓸 각오는 해야 한다. 아우디가 공개한 표시 연비는 도심 7.4km/ℓ, 고속도로 11.0km/ℓ. 시가지 구간과 간선도로를 4:6의 비중으로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8.0km/ℓ를 기록했다. 아우디의 직분사 엔진은 정속 주행을 할 경우 다른 엔진보다 연비 차이가 두드러지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장거리 정속 주행을 한다면 연비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60 TFSI의 경우 4인승은 1억7810만원, 5인승은 1억6460만원이다. BMW 750Li x드라이브가 1억8420만원, 메르세데스 벤츠 S500 4매틱 L이 1억9520만원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다.

최고급차는 '기함(旗艦)'에 비유된다. '선단(船團)을 이끄는 우두머리 배'를 뜻하는 것으로, 자동차 회사 풀 라인업의 정점에 자리하는 차가 바로 기함이다. 기함이 제 역할을 하면 그 아래급 차들의 경쟁력도 덩달아 빛을 낸다. 그런 면에서 A8는 최근 아우디의 상승세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존재다. /[illegible]@metroseoul.co.kr

# 토요타, 충돌예방 시스템 장착한다

토요타자동차가 충돌 회피 또는 피해 경감을 지원하는 예방 안전 패키지를 개발, 201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종류의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Toyota Safety Sense) 패키지는 2017년까지 일본, 북미, 유럽에서 OEM차량, 공동 개발 차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승용차에 장착된다.

토요타가 개발한 보행자 충돌 예방 시스템

이번에 발표한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패키지는 지금까지 진화시켜 온 토요타의 예방 안전 기술 가운데 충돌 예방 시스템(Pre Collision System, PCS), 차선 이탈 경고(Lane Departure Alert, LDA), 오토매틱 하이빔(Automatic High Beam, AHB) 등 여러 기능을 패키지화한 것이다.

이 장비는 카메라와 레이저 레이더 또는 카메라와 밀리파 레이더를 조합해 다른 2개의 센서로 인식 성능과 신뢰성을 갖추고, 다양한 안전 운전 지원을 한다. 차량 타입에 맞춰 콤팩트카 전용의 C 패키지와 중형사이즈 및 고급차 전용의 P 패키지의 두 종류가 가능하다.

토요타는 교통사고 사상자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통합 안전 콘셉트에 근거한 각종 안전 장비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 환경 정비, 안전장비 개발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폭넓은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illegible]기자

<국산차 수입차 연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 제조사 | 차종 | 2009년식 | 2010년식 | 2011년식 | 2012년식 | 2013년식 |
|---|---|---|---|---|---|---|
| 현대 | 그랜저 | — | | 2,000 | 2,270 | 2,770 |
| | YF쏘나타 | — | 1,110 | 1,250 | 1,330 | 1,530 |
| 쉐보레 | 스파크 | | 340 | 550 | 710 | 810 |
| | 말리부 | | | 1,540 | 1,610 | 2,020 |
| | 크루즈 | | 870 | 1,230 | 1,370 | 1,500 |
| BMW | 5시리즈 | | 3,440 | 3,780 | 4,320 | 4,670 |
| | 3시리즈 | — | 2,050 | | 3,350 | 3,400 |
| 폭스바겐 | 티구안 | — | 2,610 | 2,730 | 3,040 | 3,320 |
| 아우디 | A6 | | | 4,000 | 4,110 | 4,510 |
| 미니 | 쿠퍼컨트리맨 | | 1,830 | 1,920 | 2,240 | 2,290 |
| 벤츠 | C클래스 | | 2,740 | 2,960 | 3,240 | 3,860 |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 금호, BMW에 ‘엑스타 HM’ 공급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BMW의 대표 차종인 3시리즈에 OE(Original Equipment,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BMW 소형차 브랜드 미니(MINI)의 고성능 모델 '미니 JCW GP(John Cooper Works GranPrix)'에 OE를 공급하며 파트너십을 이어온 금호타이어는 BMW의 인기 모델인 3시리즈 OE 공급을 통해 신차용 타이어 공급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단단히 다지게 됐다.

1975년 출시 이후 BMW를 대표하는 차종으로 자리매김한 3시리즈는 세계적으로 연간 50여만 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다. 파워풀한 드라이빙 퍼포먼스와 경제성,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춰 인기가 높은 모델이다. 금호타이어는 3시리즈에 고성능 타이어를 공급해 주행에 최적화된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시리즈에 장착되는 '엑스타(ECSTA) HM'은 금호타이어의 초고성능 타이어(UHP)로 트레드(바닥면) 컴파운드 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핸들링과 주행안정성을 갖췄다. 젖은 노면에서도 탁월한 주행성능을 자랑한다. 해당 제품은 225/55R16 규격으로 독일 딩골핑 렌겐과 레겐스부르그 공장에 공급된다. 이미 유럽에서는 2010년 독일의 유명 자동차 전문지인 '아우토빌트'가 실시한 품질테스트에서 글로벌 14개 업체 중 '적극 추천' 등급을 받으며 우수한 성능을 인증한 유럽 시장 주력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벤츠 B클래스에 195/65R15 규격이 2013년 11월부터 공급되고 있다.

정덕균 OE개발담당 상무는 "이번 OE 공급은 금호타이어가 보유한 세계 정상급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가 까다로운 [illegible]의 품질 기준을 만족시킨 결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기술과 브랜드 역량을 강화해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OE 공급 확대와 더불어 해외 시장 공략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illegible]기자

## '아전인수'식 판매량 통계 홍보

뉴스룸에서
정 영 일
<생활유통부 부장>

지난달 28일 이색적인 보도 자료가 모든 언론에 배포됐다. 롯데네슬레코리아가 롯데마트에서 남양유업을 제치고 커피믹서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자료의 요지는 '롯데네슬레코리아가 지난 10월 판매량을 기준으로 롯데마트에서 전체 커피믹스 시장점유율 약 10%를 기록해 8.6%를 차지한 남양유업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과가 지난 6월 롯데푸드와 네슬레코리아의 합작 시너지 효과가 롯데의 거대한 유통망의 주축인 '롯데마트'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네슬레코리아는 합작 이후 탄탄한 유통망을 발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롯데계열과의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자화자찬도 늘어놨다.

하지만 이 자료에서 정확한 사실은 단 한가지에 불과했다. 롯데마트에서만 롯데네슬레 커피믹서 제품이 처음으로 2위를 차지 한 것이 전부다.

실제로 본보가 롯데마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0월 한달동안 롯데네슬레의 커피믹서류 제품이 전체 커피믹서류 가운데 9.9%의 매출 비중을 차지해 9.0%인 남양유업의 제품군을 0.9% 앞섰다. 이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동서식품 커피믹서 제품군 매출 비중은 81.2%에 달했다.

롯데네슬레 측의 주장대로 만년 3위였던 회사가 단 1%도 안되는 차이를 두고 순위 변동시켰다고 강제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시장점유율을 10%로 올리고 타사 점유율을 0.4% 적어 내린 거짓자료로 소비자들을 현혹 시킨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또 대형유통 업계 가운데 롯데마트만의 실적을 골라 잘됐다고 포장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특히 해당 매출 비중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관련 자료를 롯데네슬레코리아 측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진실성 마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두 회사가 합친 후 대외적으로 치적을 알리기 위한 꼼수에 이를 잘 수밖에 없는 일이다.

비교 의미가 없는 부분에 공을 들이며 소비자를 속이는 대신 제품 개발을 통해 진정성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산케이신문 재판 – 철저하게 법대로

정론탁설
유 병 팔
<언론인>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진행되는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8)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재판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재판장 이동근)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한정민 법무법인 동한 변호사와 대동하고 출두한 가토 전 지국장은 박대통령의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사를 통해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앞선에 알리기 위해 기사를 썼을 뿐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인은 "독신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았다"고 변론했다.

물론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기소가 가능하고 기토씨가 박 대통령과 정윤회(59)씨 등에 대한 거짓 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공방전으로 비추어 보아 앞으로 산케이 신문의 허위 보도 사실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적 관심사항이다. 그렇지않아도 한·일관계가 냉각될 대로 냉각된 상태에서 이번 산케이 신문 허위보도가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제법은 물론 각종 선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처하되 특히 국내법에 따라 추호의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판결해야 한다.

지금 한·일 관계가 싸늘해도 우리나라는 싫든 좋든 외교 안보 경제면에서 긴밀한 관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정세 변화에 매우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安倍 쓸조) 일본 총리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해오며 한·일 관계를 경직시켜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는 혐한(嫌韓)세력이 증식되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산케이 신문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상대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오보는 매우 유감스럽다. 더욱이 내년 6월이면 그토록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의 앙금을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된다. 이제 두 나라가 보다 성숙된 이웃으로 발전돼야 하나 산케이 신문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 점을 재판부는 더욱 냉엄한 자세로 주목해야 한다.

포토프리즘

### 두터워진 마네킹 옷

쌀쌀한 날씨속에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명동을 지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의류매장 쇼윈도에 걸린 옷들을 보고 있다. 추워지는 날씨에 비례해 마네킹에 걸린 옷들도 두터워지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뜨거운 글로벌 환율전쟁, 대책 있나?

기자수첩
김 민 지
<금융시장부 기자>

중국과 유럽연합(EU)이 경기부양을 위한 '돈 풀기'에 뛰어들면서 글로벌 통화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2년 4개월만에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한 데 이어 머지 않아 추가로 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인민은행은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6%에서 5.6%로 0.4%p,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0.25%p 인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면 중국 당국은 바로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의 부양책은 우리 경제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다. 금리 인하로 중국 기업들의 자금 압박이 경감되고, 중국 경제가 부양된다면 중국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에겐 분명 호재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좋은 방향의 효과를 계속 누리게 될지는 의문이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 수출품목의 절반 이상은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 향후 금리 인하와 위안화 약세로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낮아지면 우리 수출품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양적완화를 조만간 시작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최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금융회의에서 "ECB가 목표로 잡은 인플레율 달성을 지체없이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글로벌 통화전쟁의 파고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환율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내수를 진작하고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것은 물론 기준금리를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 한 사람이 바다다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바야흐로 '바나나'임이 시작됐다. 12월은 그리스마스와 송년이라는 두 단어로 온통 노는 시간이다. 적어도 마음은 그렇게 선다.

온갖 종류의 취미활동과 SNS모임이 활성화된 요즘은 사실 연중 파티가 가능하다. '불금'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이다. 주5일제 영향인 듯 하지만 실은 개인마다 급격히 많아진 사교활동, 취미활동, 교육활동의 영향이 크다. 사람이 좋으면 모임이 빈번해지고, 정기모임이 되고 별의별 명목으로 이벤트를 갖는다.

부쩍 많아진 모임 탓에 관계의 깊이는 덜해졌다. 바쁘다는 걸 인정하는 쿨(?)함 덕분이다. 이런 저런 개인적 사유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거나 문자로 불참을 통보하거나 단체로 대화하는 SNS 창에 사과를 던진다. 상대방이 답을 했든 아니든 상관없다. 나는 알렸으니까. 그리고 급작스런 결정이나 먼저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 받는다. 미자 년 안 바쁜가봐?'라고 되묻는 것 같다.

혹자는 12월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때라고 말한다.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지, 그와 만날 약속을 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따라 그의 사회적 인간적 가치가 매겨진다는 주장이다. 일면 그럴 듯하다. 반면 12월에 저녁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너무 많은 약속에 지인 사람들에게 자기까지 덧붙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시간은 특정 시점만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 사람이 바다다'란 말이 있다. 한 명을 깊이 사귀고 귀하게 여기면 그가 바다와 같이 넓은 인격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가 다 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일상이 더 외로워지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나에게 바다와 같은 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바다와 같은 사람인가. 이런 우리 너무 광대하고 넓어진 관계의 종류에 지쳤다. 관계의 하향평준화 탓이다.

우리는 고유한 바다를 챙겨져 두고 오아시스를 찾아 사막을 헤맨다. 나에게도 있고 당신에게도 있는 그 바다에 몸과 영혼을 담는 12월은 어떠한가.

/트렌드아카데미(www.ftr.co.kr) 대표

# "블랙프라이데이 가니 사이버먼데이!"

## 유통가, 연말까지 직구족 공략

연말까지 유통업계가 해외 직구 상품 판매에 집중한다. 블랙프라이데이가 유통가 연말 대목으로 통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해외 쇼핑 기념일이 함께 주목받으면서 직구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블랙프라이데이가 종료된 직후인 12월 1일은 '사이버먼데이'이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끝낸 직장인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매출이 급등하자 생겨난 용어로 '블랙먼데이'라고도 불린다.

유통업계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사이버먼데이 이벤트를 열고 연말 쇼핑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오픈마켓 옥션은 '해외상세일' 프로모션을 12월 31일까지 열고 브랜드 신발을 할인 판매한다. 나이키 한정판·컨버스·리복·퓨마 등의 해외 브랜드 상품이 준비돼 있다.

G마켓도 12월 말까지 "WHATS HOT BAG&ACC" 프로모션을 통해 가방·신발·지갑·시계 등 각종 패션잡화를 할인가에 선보인다.

또 G9는 사이버먼데이 당일인 12월 1일까지 '해외 직구 50% 캐시백' 프로모션을 펼친다. 해당 기간까지 해외직구 상품 모바일 앱으로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50%(최대 1만원)를 G캐시로 돌려준다.

배송대행 사이트 세븐존은 애플 아이패드에어2를 구입하고 이벤트에 참가하면 100명을 추첨해 국제 배송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5일까지 실시한다.

이 외에 위즈위드가 1일부터 2일까지 세일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업계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놓친 직구족들이 사이버먼데이에 해외 쇼핑을 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며 "사이버먼데이와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쇼핑 대목이 이어지기 때문에 연말까지 직구 상품 판매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유통 업계는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해외 쇼핑 매출이 큰 폭 신장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 행사를 진행하고 할인감지 상품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당일 매출이 바짝 올랐던 지난해와 달리 행사 전부터 수요가 몰렸다.

G마켓은 11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지난해 보다 직구 상품 판매가 64% 증가한 가운데 10일 선보인 '다음 어디트 킥글로우'는 준비된 3000켤레 모두 품절됐으며 17일 판매된 'US 다우니' 6000점도 당일 완판을 기록했다.

옥션은 '블랙에브리데이' 행사 기간인 11월 17일부터 27일까지 해외 상품 판매가 전주 대비 70% 늘었다. 11월 해외 직구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배 신장했다.

이 외에 지난달 17일부터 행사를 시작한 11번가는 27일까지 해외 쇼핑 매출이 50%가량 상승했다. 위메프박스는 27일 하루 동안 신청 건수가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 당일 보다 3배 신장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라바라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어린이들이 라바와 조소 등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모형의 손난로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손난로 전용 8종을 7200원 균일가에 전점에서 판매한다. /연합뉴스

# 쉽고 간단한 '홈파티' 열어볼까?

## 술은 와인 잔, 샐러드는 깊은 볼, 고기는 포도씨유 뿌려 오븐에

연말 홈파티를 즐기는 집들이 늘어나면서 음식을 멋스럽게 담는 '플레이팅' 팁이 주목을 끌고 있다.

파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이다. 어떤 술잔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술의 맛과 향뿐만 아니라 파티 분위기도 달라진다. 여성 애주가들의 베스트셀러인 '산사춘'의 새콤달콤한 맛은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리는데다 소화작용을 돕는 산수유가 들어있어 좋다. 산사춘을 유리 와인 잔에 담아 마시며 레몬이나 라임을 슬라이스로 썰어 한 조각 띄우면 단순한 술이 아닌 음식의 한 종류처럼 부피감을 줄 수 있다.

배를 든든히 채워 줄 고기 메뉴도 준비하면 좋다.

시판 폭립처럼 완전히 조리된 고기 종류는 겉에 포도씨유를 살짝

바르고 마른 허브를 뿌려 오븐에 다시 한번 구우면 레스토랑 못지않은 퀄리티를 낼 수 있다.

파티를 준비하는 동안 샐러드의 잎채소가 시들해졌다면 잎채소만 따로 골라 찬물에 잠시 담갔다가 파릇파릇하게 생기를 줄 수 있다. 물기를 털고 나머지 재료들과 가볍게 버무린 뒤 드레싱을 살짝 뿌려 그릇에 담는다. 깊은 볼에 공기와 쉬는 느낌으로 가볍게 들어 담고, 남은 드레싱을 살짝 끼얹으면서 볼의 여백에도 살짝 뿌려 맛을 낸 뒤 드레싱을 작은 그릇에 곁들여 낸다.

조각 케이크 같은 디저트는 초콜릿을 녹여 심플한 큰 접시에 작은 국자로 한 국자 담은 뒤 초콜릿의 가장자리에 붓으로 터치해 모양을 살린 다음 그 위에 케이크 한 조각을 올리고 슈가파우더를 살짝 뿌린다. 초콜릿과 어울리지 않는 디저트라면 꿀이나 메이플 시럽 등 다른 시럽류로 대체해도 좋다.

/정해원기자 jhw@



# '강강술래' 전직원 CS교육 큰 호응

## 서비스 특강부터 다양한 실습과정 진행
##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화 및 경쟁력 제고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강화와 리더십·커뮤니케이션 능력 양성을 위해 진행중인 CS(Customer Satisfaction-고객만족) 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총 10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양평 kobaco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고객만족 경영과 서비스 마케팅, 리더십 등에 관한 특강은 물론 고객 응대법 등 다양한 실습 교육까지 포함돼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당사의 비전과 미션, 중장기 사업계획을 비롯해 변화된 인사평가와 복지제도 등 경영방향 및 경영이념을 이해하며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강강술래는 12월 3일까지 전 매장과 쇼핑몰(www.sullai.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칠칠한수덕갈비(1.08kg 3만8000원)와 흑임자한돈너비아니(1.08kg 1만9600원), 통등심돈가스(2.16kg 2만3800원), 모짜렐라돈가스(2.16kg 2만8000원)를 2세트 사면 1세트를 추가 증정한다.

같은 기간 매장(청담~중대점 제외)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거나 신규가입 멤버십 회원에게 국내산 갯벌천일염(3kg)을 무료 증정하며, 산타리타 '히어로 카버네소비뇽' 와인을 1병 주문하면 산타리타 '히어로 멜롯' 1병을 선물로 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농악이 17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정을 기념해 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 영광 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세트(20마리)를 약 50% 할인된 6만4000원에 판매한다. /정경일기자

**밀레니엄 서울힐튼 '사랑의 자선열차'**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산타 복장을 한 직원들과 아이들이 자선열차를 관람하고 있다. 올해로 18회 째를 맞은 자선열차 행사에서 조성된 성금과 기업의 후원금은 복지시설로 전달되며 자선열차 운행은 내년 1월 11일까지 계속된다. /밀레니엄 서울힐튼 제공

# 화장품도 '레이어링' 시대

## 부스팅 에센스+오일, 수분 젤크림+앰플 두 가지 아이템 섞으면 효과도 두배 이상

환절기 온도차·자외선 등으로 약해진 피부는 때서운 겨울 바람 앞에 한순간 무너지기 쉽다. 한 겨울 여러 겹의 옷을 껴 입듯이 화장품도 '레이어링'이 필요하다. 에센스+오일, 수분크림+앰플 등 두 가지 아이템을 섞어 사용하면 효과는 배로 높이고 외부 자극은 철저하게 막을 수 있다.

은은한 향이 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피부 기초를 다져주는 '부스팅 에센스'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낸다. 프리메라의 '에센셜 오일 셀렉션 제라늄'과 '미라클 씨드 에센스'를 섞으면 제라늄 에센셜 오일의 향기는 피로감을 완화시키고 부스팅 에센스는 피부에 생기와 에너지를 부여해 지친 피부를 안락으로 관리해준다.

크림과 페이셜 오일의 레이어링은 흔하게 사용되는 만큼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보습 효과를 전한다. 이때 동일한 성분의 제품을 쓰으면 각각의 유효성분이 상충하지 않으면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는 최적의 레시피가 완성된다.

첫물 녹차 성분이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과 녹차 씨앗 오일이 함유된 '그린티 씨드 트리트먼트 오일'을 함께 쓰면 보습감은 물론 첫물 녹차의 봄 기운과 녹차 씨앗의 겨울 에너지가 안티에이징 효과를 부여한다.

피부 보약이라고 불리는 앰플은 소량만으로도 즉각적인 피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촉촉한 수분 젤크림에 수분 앰플을 첨가하면 더욱 강력한 보습 케어가 가능하다. 리리코스의 멀티 수분 젤크림 '마린 트리플 컨센트레이트'(사진)에 강력한 수분을 선사하는 고농축 앰플 '마린 하이드로 앰플 EX'를 적당량 믹스해 얼굴에 바르면 겉은 물론 속까지 수분을 전달,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가꿔준다.

/박지원기자 ...@metroseoul.co.kr

# 유아용품 업계 '다둥이맘' 잡아라

## 유모차·수유쿠션 등 관련 상품 인기

최근 통계청 자료 '201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사상 최저를 기록한 반면 다둥이 구성비는 3.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실용성이 높은 다둥이 육아 상품이 덩달아 인기다. 특히 TV예능 프로그램에 다둥이 관련 상품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인기에 한몫 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육아에 빠질 수 없는 용품이 유모차나 트레일러다. 이동할 때 쌍둥이를 태우거나 서로 다른 월령의 아이가 함께 탑승해도 무리가 없는 다둥이용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맥클라렌의 쌍둥이 유모차 'V2 트윈테크노'(사진)는 대칭형 프레임 구조로 설계돼 유모차에 전달되는 힘이 고르게 분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분리형 좌석은 장착해 아이의 성장단계와 신체 리듬에 맞춰 양쪽의 좌석 각도도 별도 조절이 가능하다. 최근 구매율이 급증하면서 일부 제품은 품절되기도 했다.

벨리의 '엔콘이 2인승 자전거 트레일러'는 기존 자전거 후방 장착 가능에 이동식 캐리어 기능이 부가된 다둥이 용품이다.

3세부터 3세까지 사용 가능한 이 제품은 최상의 안전과 내구성을 위해 용접을 하지 않은 프레임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손잡이와 넉넉한 수납공간을 장착해 편의성을 높이고, 편리한 접이 방식과 탈부착 시스템을 적용해 휴대성을 강화했다.

아기를 안고 모유 수유를 할 때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는 엄마들이 있다. 수유쿠션은 안정적인 자세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쌍둥이를 동시에 수유하기에 적합한 제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마이브레스트프렌드 '수유쿠션'은 쌍둥이를 동시에 수유해도 쿠션의 메모리폼이 변형되지 않아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2단 멀보싱 구선을 사용해 오랫동안 사용해도 쿠션력이 그대로 보존된다. 또 아기 머리가 닿는 양쪽이 볼록하게 나와있어 수유할 때 사레 걸림과 기도 막힘 예방에 도움을 준다. /김수정기자 ...

# '미생' 효과?…'데스크테리어족' 등장

## 회사 책상 꾸미며 기분 전환…장식용품 매출 500% 껑충

직장인들 사이에서 tvN 드라마 '미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회사생활에 활력을 주는 일명 '데스크테리어(desk와 interior의 합성어)' 소품을 찾는 손길이 늘고 있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는 1일부터 26일까지 오피스 관련 제품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메모보드, 데스크 매트 등의 판매가 미생 방영 전과 비교했을 때 500% 이상 늘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사무 용품 전체 판매량이 15% 뛴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예전에는 주로 수면 안대, 목베개 등 개인 편의를 위한 용품이나 사무용품이 잘 팔렸다면 최근에는 기분전환을 위한 장식용품 판매가 두드러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책상이나 식꽂이 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60cm 미만의 소형트리 판매량이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모빌, 리스, 액자 등 소품 크리스마스 장식품 판매량 역시 21% 늘었다. 특히 소규모 크리스마스 장식 아이템의 경우 전체 구매자 중 25~35 세대가 50% 이상 차지했다.

아이스타일24 리빙 카테고리 담당 김예란 MD는 "올해는 크리스마스 상품 판매가 지난해보다 2주 정도 앞당겨졌다"며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보내는 만큼 기분전환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기자기한 소품을 많이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 라바 영어체험전, 얼리버드 티켓 판매

## 소셜커머스 쿠팡·티켓몬스터서 최대 35% 할인

오는 12일 개막하는 '놀면서 배우는 어린이 영어체험전 2nd 못 말리는 라바의 영어체험전'이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12일까지 소셜커머스 쿠팡과 티켓몬스터를 통해 진행되는 프로모션에서는 2만원인 어린이 일일 체험권이 30% 할인된 1만4000원에 판매된다. 또 보호자 입장권은 1만원에서 30% 할인된 7000원에 구입 가능하며 어린이와 보호자가 입장권을 함께 구입하면 전체 금액에서 35%가 할인된다.

체험관은 정상JLS의 우수한 영어 콘텐츠를 도입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영어존과 다양한 놀이시설이 구비돼 있는 놀이존으로 구성돼 있다. 또 내년 3월 1일까지 서울 광진구 능동에 위치한 어린이회관 특별전시관에서 열린다. 문의 02)336-1876 www.larvaplay.com /황재용기자

# 연말연시 소중한 추억 만드세요

## 쉐라톤 인천 호텔, 다양한 프로모션 선봬

쉐라톤 인천 호텔이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먼저 시그니처 뷔페 레스토랑 피스트에서는 1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동서양의 진미가 가득한 페스티브 특선 뷔페를 만날 수 있다. 점심과 저녁 모두 이용 가능하며 1만4000원을 추가하면 와인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또 이탈리아 레스토랑 베네는 페스티브 디너와 뷔페를 선보인다. 페스티브 뷔페는 12월 매주 토요일에 열리며 22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지는 페스티브 디너에서는 6가지의 특선 코스 메뉴가 준비된다.

이와 함께 매주 토·일요일에는 올해 가장 사랑받았던 이탈리아 레스토랑과 양식 레스토랑 메뉴로 구성된 'Ed&Jack's Jazz Brunch'가 마련되고 중식당 유에에서는 중국 4대 요리 중 하나인 상하이 요리를 1인부터 28위까지 맛볼 수 있다.

이외에도 호텔은 피스트 델리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진저브레드 하우스 등 달콤한 디저트 등도 마련했으며 총 4차례에 걸쳐 특별한 쿠킹 클래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32)835-1000 www.sheratonincheon.com /황재용기자

# 1인 가구 늘자 크리스마스 장식도 변화

## 인테리어 소품 매출비중 56%로 트리 추월

내년 1인 가구수가 53.8%에 달할 것이라고 통계청이 전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맞는 소비자들의 행태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의 경우 크리스마스 시즌 실내 인테리어의 기본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크리스마스 전등 으로 분위기를 내는 가구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책상이나 장식장 등에 올려놓는 것만으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실제로 11월 들어 이마트 크리스마스 장식 관련 매출 중 56%가 소품 인형·스노우 글로브 등 인테리어 소품이었다. 하지만 중·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매출 비중은 44%로 전년보다 1.% 포인트 낮아졌다.

신장율 역시 인테리어 소품은 19% 높아진 반면, 크리스마스 트리 매출은 오히려 6% 가량 감소했다.

마트 측은 이런 트렌드 변화가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환경 변화와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1~2인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거주 환경 역시 원룸이나 작은 평수 거주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큰 공간을 차지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 포인트 소품을 통한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즌에만 활용되는 트리에 비해 인테리어 소품들은 겨울 내내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편리성도 트렌드 변화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소비자 트렌드로 인해 이마트에 입점해 있는 자주(JAJU)는 올해 아예 트리를 빼고, 캔들과 디퓨저·작은 인형·오브제 등 홈 데코 소품으로만 크리스마스 매장을 꾸미기도 했다.

/정영일기자 [email]

# 직장여성 위한 숙취해소 제품 어떤게 좋을까?

##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 떨어져—기능성 음료 등 인기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회식 등 끊임없이 이어질 술자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들은 본인의 주량을 넘어설 때까지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를 꺼려하고 다음 날 숙취와 피부도 걱정이다. 이에 여성들에게 적합한 기능성 숙취해소 제품들을 소개한다.

먼저 동아제약의 '모닝케어 레이디'가 있다. 모닝케어 레이디는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국내산 마레이 대두 발효 추출액과 민들레술 추출분말, 울금과 함께 피부 탄력과 보습에 도움을 주는 ▲콜라겐 ▲엉겅퀴 추출물 ▲히알루론산 ▲그린커피빈 추출물 등을 함유하고 있다. 또 상큼한 맛을 더해주는 블루베리 농축액이 추가됐으며 회사는 제품 용량은 75㎖로 줄여 복용 편의성을 더했다.

블루베리 맛 주스와 망고 맛의 젤리로 잘 알려진 한독 '레디큐'는

울금(강황)에서 추출한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출시된 젤리 형태의 '레디큐 츄'는 1개당 커큐민을 10㎎ 함유하고 있으며 젤리 3개가 개별 포장돼 있어 음주량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다. 게다가 부피가 작아 여성들이 핸드백에 넣고 다니기에도 좋다.

CJ헬스케어의 '컨디션레이디'도 빼놓을 수 없다. 헛개나무 열매 농축액과 자리화 등기 등 숙취해소 효능이 있는 헛개컨디션의 주요 성분과 함께 피부 보습에 효과적인 히알루론산이 추가됐다. 또 손상된 지방간 회복에 도움을 주는 항지간 작용 외에도 가르니틴을 생성해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베타인 성분과 비타민C 성분을 통해 음주로 지친 몸에 활력을 더해준다.

한국코와의 '카베2코와과립'도 휴대가 간편하고 복용이 쉬워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 양배추 유래 성분인 MMSC를 주성분으로 하는 카베2코와과립은 위 점막 수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으로 체신성분이 함유돼 숙취로 찾아오는 위통이나 속쓰림에 효과적이다.

/황재희기자 hsoul38@

# '빌라드샬롯' 수원롯데몰 2호점 오픈

유럽풍데이드 다이닝&카페 '빌라드샬롯'이 제2롯데월드몰에 이어 롯데몰수원점에 2호점을 지난달 27일 공식 오픈했다.

지난 10월 16일 사전 오픈 이후 지난 25일까지 1호점인 잠실점에는 총 3만 명 이상의 고객이 방문해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업계 측의 설명이다.

이번 수원롯데몰에 오픈하는 빌라드샬롯 2호점, 100평 면적에 126객석의 규모로 운영되는 대장이다.

이 매장은 오픈을 기념해 3만원 이상 구매객 1000명에게는 빌라드샬롯 로고를 삽입한 머그컵을 증정하고, 5만원 이상 구매객 500명에게는 에코백을 증정한다.

회사 관계자는 "연내 5개점 운영 목표 달성을 통해 많은 고객들이 빌라드샬롯의 높은 품질의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고객 만족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 '예민한 위와 장 달래기' 번역 출간

##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 정성애 교수팀

정성애(사진)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 소화기내과 교수팀이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발간한 '예민한 위와 장 달래기'를 번역 출간했다.

책은 위식도 역류 질환과 기능성 소화불량증, 과민성 장 증후군 등 다양한 소화기 질환의 증상과 원인, 진단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 교수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앞서 의사뿐 아니라 환자도 질환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이 책은 소화기계 기능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일반인들에게 특히 유익한 도서"라고 말했다.

/황재희기자

# 변비,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병원 찾아야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번은 겪는 변비.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변비를 치료 없이 호전이 가능한 단순한 증상으로 오해해 치료를 방치하거나 잘못된 치료법을 지속하고 있다.

변비는 배변 횟수가 적은 증상을 말하며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변비라고 한다. 또 ▲딱딱하게 굳은 대변 ▲배변 시 무리한 힘 필요 ▲잔변감 등의 증상이 여어져도 만성 변비다. 만성 변비를 방치하면 치질이나 장게색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변비 환자들은 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지하거나 약국에서 판매되는 변비약을 무분별하게 복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민간요법과 약국에서 판매하는 변비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단순한 증상 완화일 뿐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최근 출시된 장 운동 개선에 효과적인 세로토닌 4형(5-HT4 receptor) 수용체 작동제 등의 만성 변비 치료제를 복용하는 등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

최석채 원광대 소화기내과 교수는 "만성 변비는 환자 개인의 장 무력화 정도와 유병기간, 고통을 호소하는 증상 등이 전부 다른 복잡한 질환"이라며 "만성변비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희기자

'빅매치'로 스크린 찾은 이정재

# 수양대군, 유쾌한 '좀비 파이터'가 되다

## '도둑들' '신세계' '관상'으로 흥행 연타석 홈런<br>액션 연기·유쾌한 캐릭터에 선택한 '빅매치'<br>차기작 '암살'… "팬 사랑은 작품에 대한 사랑"

스타가 되는 것만큼 연기를 이어가는 것도 어렵다. 인기의 부침 속에서 슬럼프를 겪기도 한다. 정우성·장동건 등과 함께 90년대 대표 청춘스타였던 이정재(41)에게도 슬럼프는 있었다. 2000년대 중반 연이은 영화의 흥행 실패를 겪으면서였다.

그러나 지금 이정재는 과거의 부진을 잊기라도 한듯 '흥행보증수표'로 충무로를 종횡무진 중이다. '도둑들'을 시작으로 '신세계' '관상' 등 출연작마다 흥행 연타석 홈런을 날리며 어느 새 '믿고 보는 배우'가 됐다.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도 그를 스타로서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달 27일 개봉한 '빅매치'(감독 최호)는 '관상' 이후 1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온 이정재를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다. 정체불명의 악당에게 납치된 형을 구하기 위해 서울 도심을 무대로 한 미션을 펼치는 격투기 선수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정재는 주인공 최익호 역을 맡아 오랜만에 유쾌한 캐릭터를 연기했다.

이정재가 '빅매치'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 액션영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제는 건장한 몸을 보여드리는 역할은 못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옛날처럼 근육도 잘 안 붙더라고요. 소화기능도 점점 떨어지다 보니 몸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빅매치'를 하게 됐어요."

캐릭터에 대한 고민도 작품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 '신세계'의 이자성, '관상'의 수양대군 등 지난 두 작품에서 이정재는 다소 무겁고 카리스마 있는 역할로 관객에게 강렬함을 남겼다. 다음 작품으로 예정된 최동훈 감독의 '암살'과의 사이에서 한번쯤 가벼운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를 '빅매치'의 최익호 역으로 이끌었다.

이번 영화에서 이정재는 지난 두 작품의 무게감을 떨쳐내려는 듯 시종일관 가볍고 유쾌한 모습을 연기한다. '좀비 파이터'라는 별명을 지닌 파이터 최익호를 소개하는 오프닝 시퀀스는 이정재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경기에서 승리한 뒤 링 위에서 양 손을 흔들며 추는 '좀비 댄스'는 유쾌함을 넘어 귀여움까지 느끼게 한다.

"영화 시작부터 익호의 유쾌함을 관객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우리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짧고 명확하게 보여주자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쾌한 동작과 표현을 고민하다 어떤 외국 선수의 세레모니를 따라하게 됐어요."

영화는 액션 게임을 스크린에 옮겨놓은 듯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적들을 물리치며 스테이지를 뛰어넘는 게임처럼 영화 속 익호는 경찰서에서 불법도박장, 월드컵경기장과 서울역으로 무대를 옮겨가며 미션을 수행한다.

이정재는 게임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인터넷 고스톱 게임이 나왔을 때 신기함에 잠깐 해봤을 정도다. 영화는 게임 같지만 오히려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그의 취향이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익호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정재는 "시나리오부터 게임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익호는 게임을 모르는 스포츠 선수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시종일관 액션의 향연이 펼쳐지는 영화지만 연기하면서 힘든 건 액션이 아니었다. 액션 중간마다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더 힘들었다. 최호 감독이 이정재에게 가장 많이 요구한 것도 액션보다 코믹적인 부분이었다. 이정재는 "개인적으로는 코믹 연기에 재능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큰 웃음은 못 드려도 영화의 톤을 밝게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노력했다"고 밝혔다.

'빅매치'를 마친 이정재는 지금 최동훈 감독의 신작 '암살'을 촬영 중이다. '도둑들'에서 함께 했던 전지현·오달수, 여기에 하정우·조진웅·이경영 등이 가세한 기대작이다. 팬들의 마음은 이미 '암살'의 개봉이 예정된 2015년 여름을 향하고 있다.

"'하녀'부터 슬럼프에서 잘 빠져나온 것 같아요. 임상수 감독님과의 만남이 즐거웠거든요. 그 다음에 최동훈 감독님이 '도둑들'을 제안했을 때도 반가웠고요. 이번 '빅매치'는 최호 감독님도 있었지만 제작사 심보경 대표님이 더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셨어요. 팬들의 사랑은 이런 작품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저 작품을 제안해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에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호호호비치 제공 디자인/박은지

# 올 겨울 가요계 대세는 '듣는 음악'

## 명품 보컬리스트 앞다퉈 대거 컴백
## 방송활동 없이 음원·TV 차트 점령

올 겨울 가요계에는 명품 보컬리스트들이 대거 컴백해 '듣는 음악'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가수 유희열의 원맨 프로젝트 토이의 정규 7집 '다 카포(Da Capo)'는 지난달 18일 발표 이후 온·오프라인 주간 차트를 석권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발라드의 황태자 성시경이 부른 타이틀곡 '세 사람'은 지난달 28일 방송 활동 단 한 번 없이 KBS2 '뮤직뱅크'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세 사람'은 디지털 음원점수(4764점)와 음반 점수(1865점)로 시청자 선호도 점수 0점을 극복하고 1위 후보에 함께 오른 규현의 '광화문에서'를 꺾었다. 또 김동률과 이적이 부른 수록곡 '너의 바다에 머무네', '리셋' 등도 온라인 차트에 함께 오르며 음악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토이의 히트곡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여전히 아름다운지'를 부른 가수 김연우는 지난달 27일 신곡 '눈물고드름'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미니앨범 '무브(MOVE)'에서 김연우는 래퍼 트로이, 보이그룹 블락비의 박경 등과 함께 작업하며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바 있다. '무브'가 김연우의 신선한 음악 색깔을 보여준 앨범이라면 '눈물고드름'은 김수성 곡은 발라드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팬들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다.

'눈물고드름'은 '해독제'를 윤종신과 공동 작업했던 포스티노가 작곡했다. 박효신 '좋은 사람', '해줄 수 없는 일', 김범수 '보고 싶다' 등 히트 발라드 곡의 노랫말을 쓴 윤사라가 작사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해 쌓이가는 그리움을 고드름에 비유한 가사가 쓰는한 겨울 날씨에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수 박효신은 데뷔 15주년 기념 연말 콘서트 '해피투게더(Happy Together)'를 앞두고 동명의 신곡을 발표했다.

박효신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해피투게더'는 지난 3월 '야생화' 이후 약 8개월 만에 실시간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다. 음악와 형으로 행복을 전달하고 싶다는 박효신의 바람이 담긴 곡이다. 그는 "일어나 다시 그 길 따라 걸어보길" "발을 맞추며 가자" "너를 위한 '셀로다'" 등의 노랫말을 통해 팍팍한 삶에 지친 이 시대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해피투게더'를 듣기 힘들 전망이다.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효신은 올해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계획이 없으며 신곡은 연말 공연 무대에서만 부를 예정이다.

엠넷 '슈퍼스타K 6'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던 김범수는 본업인 가수로 다시 돌아와 지난달 21일 정규 8집 '힘(HIM)'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은 '집 밥'이지만 수록곡 '너의 집 앞에서'도 타이틀곡 못지않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너의 집 앞에서'는 1956년 발매된 곡의 노래로 김범수에 의해 처음 리메이크됐다. 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한 사람의 순애보를 노래한 '너의 집 앞에서'는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원했으나 원곡 제작자 박선주가 허락하지 않았다.

김범수는 "박선주 선생님에게 간절히 요청해 가수 중에 처음으로 이 곡을 리메이크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무척 기쁘다"고 전했다.

박선주는 "'너의 집 앞에서'는 개인적으로 무척 아끼는 곡"이라며 "김범수의 목소리로 충분하게 재탄생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과 김범수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 원곡에 버금가는 감동이 전해졌다"고 밝혔다.

/김지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 '2014 MAMA' 화려한 라인업 공개

## 아이유·씨스타·인피니트 2차 라인업 추가
## 시상자 명단도 '쟁쟁'… 한류 스타 총출동

아시아 최대 음악 축제인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이하 '2014 MAMA')가 화려한 출연진 라인업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CJ E&M은 "지난 10월 엑소 지드래곤·태양에 '2014 MAMA' 1차 라인업에 포함된 데 이어 씨스타·아이유·인피니트도 출연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1·2차 라인업에 오른 아티스트들이 풍성한 볼거리를 예고한 가운데 시상자 라인업도 쟁쟁해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4 MAMA' 제작진은 "권상우·최지우·송승헌 등 아시아 스타는 물론 이동욱·박보영·김지훈·김지석·연우진·한그루·정수진·유인나·강소라·안재현 등 올 한해 TV에서 활약한 스타들이 시상자로 나선다"며 "한중 국제커플인 채림·가오쯔치 부부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한해 아시아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든 주역들이 '2014 MAMA' 시상자로 참여해 자리를 더욱 빛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려한 시상자 라인업만큼 멋진 퍼포먼스와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 MAMA'는 3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열린다. 시상은 가수별 5개, 장르별 8개, 특별상 2개, 유니온페이 올해의 가수, 유니온페이 올해의 노래 등 총 17개 부문에서 이뤄진다. 온라인 투표는 오는 2일 자정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지민기자

아이유, 씨스타 (왼쪽부터)

# 나나 中 드라마 출연 '주목'

## '황후의 남자' 캐스팅, 중국어 대사 소화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나나(사진)가 중국 후난TV에서 방송 예정인 드라마 '황후의 남자'(가제)에 캐스팅됐다.

'황후의 남자'는 현대의 무명 여배우와 고대 한나라 유학자가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사랑과 모험을 벌인다는 내용의 드라마다. 한국의 CJ E&M과 중국의 천표미디어가 공동 제작하는 작품이다.

나나는 이번 드라마에 유일한 한국 배우로 캐스팅됐다. 모든 대사를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로 소화한다. 드라마는 12월부터 촬영을 시작해 내년 2월 방송 예정이다.

소속사 플레디스 관계자는 "이번 작품에 나나가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나나가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하는 만큼 본인이 연기자로서 이번 작품에 참여하는 것에 긍정적이고 기대가 크다"며 "모든 대사가 중국어로 돼 있는 만큼 본인도 준비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한편 나나는 현재 SBS '룸메이트 시즌2'에 출연하고 있다. '황후의 남자' 캐스팅과 함께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 '먹방' 가고 '요리하는 남자'가 뜬다

## tvN '삼시세끼' 이서진·옥택연, 재료손질부터 설거지까지
## 올리브TV '오늘 뭐 먹지?' 신동엽·성시경, 셰프로 변신

최근 음식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들이 '요리하는 남자'를 앞세워 시청자를 공략 중이다.

과거 음식을 소재로 삼은 프로그램들은 조리 과정만 보여주거나 맛집을 소개하며 '먹방(먹는방송)'에만 집중했다. 현재 방영 중인 tvN '삼시세끼'와 올리브TV '오늘 뭐 먹지?'는 출연진이 직접 요리를 만들고 음식을 즐기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두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tvN '꽃보다 할배'에서 할아버지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던 '짐꾼' 이서진에게 나영석 PD는 "함께 요리 프로그램 '요리왕 서지니'를 해보자"며 장난치듯 제안했다. 나 PD의 제안은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삼시세끼'는 보통 요리 프로그램처럼 모든 것이 갖춰진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를 표방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서진과 옥택연은 강원도 정선의 한 시골마을로 내려가 아침·점심·저녁 세 '끼'를 해결한다.

이들은 직접 가꾼 텃밭 채소와 닭·염소 등의 가축으로부터 얻은 달걀과 우유 등으로 밥을 지어먹는다. 이곳에 깔끔한 조리대와 뜨거운 물이 펑펑 나오는 싱크대, 기름 없이도 바삭하게 달걀 프라이를 만들어주는 코팅 프라이팬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근육질 몸매를 뽐내던 아이돌 옥택연은 머슴이 돼 장작을 팬다. 세련된 이미지가 강했던 배우 이서진은 '머슴' 옥택연이 팬 장작으로 아궁이에 불을 땐다. 그리고 직접 읍내에서 사온 소쿠리와 도가니로 하루 종일 곰국을 끓인다. 밭에서 재료를 수확하는 것부터 요리·설거지까지 모두 이 두 사람 손을 거친다.

'삼시세끼'의 웃음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시골 마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남자가 투박한 손길로 어떻게 해서든 요리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맛이 꽤 괜찮다"며 자화자찬한다.

또 '삼시세끼'를 찾는 손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강아지 '밍키', 만능 요리 재료 달걀을 낳아주는 닭 '비틀다' 시즌의 재료가 될 소중한 젖을 주는 '잭슨' 등 도회적인 이름의 동물들은 '삼시세끼'의 감초역할을 톡톡히 한다.

개그맨 신동엽과 가수 성시경은 '오늘 뭐 먹지?'에서 요리사로 변신했다.

'오늘 뭐 먹지?'는 제목 그대로 매일같이 이어지는 메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요리 고수를 초청해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레시피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JTBC '마녀사냥'에서 1년 넘게 호흡을 맞춰 온 두 사람은 '오늘 뭐 먹지?'에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다. 특히 요리를 만들면서 주고받는 멘트들은 예능 토크쇼 못지않은 재미를 선사한다.

두 남자의 입담은 완성된 음식 앞에서 폭발한다. 성시경이 고등어조림을 앞에 두고 "루시드 폴의 '고등어'라는 노래가 있다"며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라는 가사가 있는데 참 슬프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신동엽은 "고등어는 눈알이 맛있다"며 "노래를 들으니 (고등어 조림이) 더 땡긴다"고 말한 뒤 '먹방'에 집중한다.

또 두 사람은 연예계 소문난 주당답게 요리를 만들면서도 술에 대한 욕구를 참지 못한다. 성시경은 요리에 쓰일 청주를 거침없이 입에 털어 넣는다. 신동엽은 요리 재료도 아닌 맥주를 꺼내 마시기도 해 시청자의 웃음을 자아낸다.

올리브TV 관계자는 "'오늘 뭐 먹지?'는 특히 20대 여성 시청층에게 반응이 좋다"며 "요리 트렌드가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즐기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쉽고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레시피가 시청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지민 기자 [illegible]

tvN '삼시세끼' 옥택연·이서진, 올리브TV '오늘 뭐 먹지?' 신동엽·성시경 (사진 왼쪽부터).

## 남상미 내년 1월 면사포

### 예비 신랑은 동갑내기 사업가

배우 남상미(31·사진)가 내년 1월24일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한다. 지난달 28일 남상미 소속사 JR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상미가 내년 1월24일 결혼으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남상미와 예비신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다.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최근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을 결정하게 됐다"며 "결혼식은 일반인 작은 교회에서 소박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예비 신랑과 양가 친지들을 배려해 친인척만을 초대한 비공개 예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상미는 고등학생 시절 패스트푸드점 '얼짱' 아르바이트생으로 유명세를 탔다. 2003년 드라마 '러브레터'로 배우로 데뷔했으며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KBS2 드라마 '조선 총잡이'에 이준기와 함께 출연했다.

영화로는 '그녀를 믿지 마세요' '령' '그녀를 모르면 간첩' '복숭아나무' 등에 출연했다. 지난 10월 개봉한 '슬로우 비디오'에서는 차태현과 호흡을 맞췄다.

한편 소속사 측은 "남상미는 결혼 후에도 행복한 가정과 함께 배우로서의 활동을 계속하며 작품 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정 기자 [illegible]

## '인터스텔라' 800만도 넘었다

### 역대 외화 흥행 4위로 인기몰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가 8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인터스텔라'는 지난달 29일 토요일 하루 동안 38만3017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지난달 6일 개봉 이후 24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이다. 누적 관객수는 795만5642명을 기록해 30일 중 800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역대 외화 관객 순위에서도 4위에 올랐다. '아바타'(1362만), '겨울왕국'(1029만), '아이언맨3'(900만)의 뒤를 잇고 있다. 올해 개봉 외화 중에서는 '겨울왕국'에 이은 흥행 2위를 달리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개봉한 이민재 주연의 '빅매치'는 '인터스텔라'의 기세를 꺾지 못하고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29일 하루 동안 16만5271명의 관객을 모았으며 누적 관객수는 39만7741명이다.

/정성호기자 [illegible]

## '무드 인디고' 아트 포스터 공개

미셸 공드리 감독의 영화 '무드 인디고'가 일러스트 작가들과 함께 한 아트 포스터를 공개했다.

미셸 공드리 감독은 그 동안 독특하고 환상적인 비주얼을 통해 해외 아티스트들의 작품 활동에 많은 영감이 됐다. 이번 아트 포스터는 국내 작가들에게도 다양한 영감을 선사하기 위해 일러스트레이션 전문 플랫폼인 그라폴리오를 통한 공모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에는 100여 명의 작가들이 각기 다른 감성의 작품들로 참여했다. 그 중 작가 타그트라움, 뷰리 클루시스튜디오, 김효 작가의 작품들이 최종 우승작으로 선정됐다. 이들 작가의 작품들은 엽서 등으로 제작돼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무드 인디고'는 프랑스 문학계의 거장 보리스 비앙의 소설 '세월의 거품'을 바탕으로 한 남자와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로맹 뒤리스, 오드리 토투 등이 출연한다. 오는 11월 개봉 예정.

/정성호기자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타그트라움, 뷰리 클루시스튜디오, 김효 등이 참여한 영화 '무드 인디고'의 아트 포스터

서건창

박병호

강정호

앤디 밴헤켄

# 올 프로야구 황금장갑 주인공은?

## 골든글러브 후보 발표…넥센 10개 부문 최다

올 시즌 프로야구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뽑는 골든글러브 수상자 후보가 발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수상자 후보 43명을 확정해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골든글러브 후보는 출장 경기 수와 공격·수비 성적 등 포지션별로 따로 마련한 기준에 의한 선정한다. 정규 리그 개인 타이틀 1위 선수는 자동으로 후보에 오른다.

가장 많은 후보를 낸 팀은 넥센 히어로즈다. 올 시즌 개인타이틀 10개 부문을 휩쓴 만큼 10명의 선수들이 후보로 올랐다. 통합 4연패를 달성한 삼성 라이온즈는 9명이 후보에 포함됐다.

올해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200안타를 돌파했으며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가 된 넥센 서건창은 예상대로 2루수 부문 골든글러브 후보에 올랐다. 삼성의 외국인 타자 야마이코 나바로, 두산 오재원, KIA 안치홍 등이 경쟁자로 나섰으나 서건창이 2년 만에 다시 황금 장갑에 입맞출 확률이 높다.

11년 만에 50홈런을 기록한 넥센 박병호도 1루수 부문 후보로 선정됐다. 채태인(삼성)·에릭 테임즈(NC)·정성훈(LG)·박정권(SK)·김태균(한화) 등도 함께 1루수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박병호가 3년 연속 수상할 가능성이 크다. 테임즈가 수상하면 사상 첫 외국인 선수 1루수 수상자가 된다.

유격수 부문에서는 김상수(삼성)·김성현(SK)·강정호(넥센)이 유력한 수상자로 꼽힌다.

투수 부문에서는 넥센의 앤디 밴헤켄·손승락·한현희 한리 소사 등 무려 네 명의 후보를 냈다. 그중 20승을 달성한 밴헤켄이 가장 유력한 후보다. 릭 밴덴헐크(삼성)·봉중근(LG)도 투수 부분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포수 부문은 이지영(삼성)·김태군(NC)·양의지(두산)의 삼파전이다. 3루수 부문에는 박석민(삼성)·김민성(넥센)·황재균(롯데)·송광민(한화)이 경쟁한다.

지명타자 부문 후보는 이승엽(삼성)·홍성흔(두산)·나지완(KIA)으로 압축됐다. 골든글러브 8회 수상으로 역대 최다 타이 기록을 보유한 이승엽은 올해 신기록에 도전한다. 홍성흔은 지명타자 부문 최다인 5회 수상을 노린다.

골든글러브 선정은 올해 프로야구를 취재한 기자단과 사진기자, 중계를 담당한 방송사 PD·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의 투표로 결정된다. 기간은 12월1일부터 5일까지다. 수상자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한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리디아 고 고려대 입학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4시즌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한 뉴질랜드 교포 골퍼 리디아 고(17·사진)가 고려대학교로 진학한다.

고려대는 "리디아 고가 2015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심리학과에 지원해 합격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해외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마친 외국 시민권자가 대상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리디아 고는 일반 학생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일반 학생도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싶으면 체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태어난 부모를 따라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리디아 고는 2012년 만 14세의 나이에 프로대회인 여자 NSW오픈에서 우승했다. 같은 해 LPGA 투어 캐나다여자오픈 우승에 이어 2013년 타이틀 방어까지 성공했다.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리디아 고는 2014 시즌 스윙잉 스커츠 클래식, 마라톤 클래식, CME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최우수 신인상을 받았다. /김학철기자 kimc0604@

# 장원준 84억에 두산 품으로~

## 역대 FA 투수 최고 금액 기록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 장원준(29·사진)이 역대 투수 최고액으로 두산 베어스와 계약했다.

두산은 장원준과 4년간 84억원에 FA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세부 조건은 계약금 40억원, 연봉 10억원, 인센티브 4억원이다.

SK 와이번스 잔류를 택하며 역대 FA 최고액을 기록한 내야수 최정의 4년간 86억원보다 적지만 삼성 라이온즈의 우완 투수 윤성환(4년간 총액 80억원)을 넘어선 역대 FA 투수 최고 금액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장원준이 받은 액수가 원 소속구단인 롯데 자이언츠가 제시한 4년간 88억원보다 적다는 점이다. 롯데와의 협상 결렬 당시 "금액은 상관 없다.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싶었다"고 말한 장원준이 그의 말대로 돈을 좇지 않은 결정을 내린 셈이다.

2004년 1차 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한 장원준은 데뷔 후 9시즌 동안 줄곧 롯데 유니폼만을 입었다. 258경기(1만326이닝)에 등판해 85승 77패 평균자책점 4.18을 기록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5시즌 연속 두자릿수 승리를 거두며 꾸준히 활약한 그는 리그를 대표하는 좌완 선발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장원준은 이날 계약 후 "그동안 응원해 준 롯데 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야구인생에 전환점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두산이 정말로 나를 원한다는 걸 느꼈다"며 "두산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선수들이 많아 새로운 팀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팀 우승을 위해 지금부터 바로 내년 시즌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정효진기자 jeonh@

# 손흥민 도움 힘입어 연승 행진

## 올 시즌 정규리그 두 번째

독일 프로축구 바이엘 레버쿠젠이 손흥민(22·사진)의 도움에 힘입어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레버쿠젠은 지난달 29일(한지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FC쾰른과의 2014-2015 분데스리가 13라운드 홈경기에서 5-1로 대승을 거뒀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지난달 22일 하노버96과의 경기에서 정규리그 5호골이자 올 시즌 11호골을 터뜨린 그는 이날 득점은 올리지 못했으나 후반 34분 요시프 드르미치의 추가골을 도왔다. 지난달 18일 슈투트가르트와의 8라운드 이후 나온 올 시즌 정규리그 두 번째 도움이다.

또한 손흥민은 후반 16분 하칸 찰하노글루가 터뜨린 결승골의 발판이 되는 프리킥도 얻어내는 등 공격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했다. 레버쿠젠은 이날의 승리로 정규리그 2연승을 포함해 3경기 무패(2승1무)를 달리며 3위(승점 23)로 올라섰다.

한편 코펜하겐 수비수 김진수는 하노버96과의 홈 경기에서 분데스리가 첫 도움을 기록했다. 호펜하임은 끝 잔지 끝에 하노버를 4-3으로 이겼다. 마인츠의 구자철과 박주호는 샬케04와의 원정경기에 선발로 나란히 출전했으나 1-4로 패배했다. /장병호기자

### 프로축구 전적 (30일)

| | | | |
|---|---|---|---|
| 전북 | 1 | 1 | 울산 |
| [illegible] | | | |
| 제주 | 1 | 2 | 서울 |
| [illegible] | | | |
| 포항 | 1 | 2 | 수원 |
| [illegible] | | | |

### 프로농구 전적 (30일)

| | | | | | |
|---|---|---|---|---|---|
| 삼성 | 13 | 16 | 17 | 19 | 65 |
| 오리온스 | 29 | 10 | 12 | 20 | 79 |
| 동부 | 25 | 24 | 25 | 13 | 87 |
| SK | 6 | 14 | 12 | 24 | 61 |
| 현대모비스 | 15 | 23 | 25 | 21 | 84 |
| KT | 17 | 25 | 19 | 21 | 82 |
| 우리은행 | 19 | 21 | 16 | 23 | 79 |
| 국민은행 | 12 | 9 | 21 | 19 | 61 |

### 프로배구 전적 (30일)

| | | | |
|---|---|---|---|
| 한국전력 | 0 | 3 | LIG손해보험 |

UNIVERSIADE
GWANGJU 2015
FISU
2015 GWANGJU
SUMMER UNIVERSIADE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Light Up Tomorrow
창조의 빛 미래의 빛
2015 GWANGJU SUMMER UNIVERSIADE
Dates July 3rd ~ 14th, 2015(12days)
Venues Gwangju World Cup Stadium and other stadiums
기간 2015. 7. 3 ~ 14(12일간)
장소 광주 및 인근 시군 경기장
Global Premium Partner
SK C&C
SK telecom
KIA